

18일 Market Index			
↑ 코스피	2634.70	↑ 코스닥	855.65
	(+50.52)		(+22.62)
↓ 금리 (연율)	3.427	↓ 환율 (원/달러)	1372.90
	(-0.048)		(-13.90)

신동빈 롯데회장
말레이 공장서
현장경영
02



m-커버스토리

‘정부24 먹통’ 오명 벗겠다는 정부... 근본문제는 외면

디지털플랫폼정부

디지털플랫폼정부 출범 1년
초거대AI 활용 지원사업 공모
납품대가 등 과거와 다르지 않아
가치 인정·거래구조 개선 시급

‘제2의 정부24 먹통 사태’가 우려된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가 핵심문제를 외면한 채 속도만 내고 있어서다. 공공소프트웨어(SW) 사업을 통해 디지털플랫폼정

부를 구축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처방은 뒷전으로 밀린 탓이다.

‘정부24’ 먹통 사태 당시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사업 컨트롤타워 부재 ▲담당 공무원의 잦은 업무단절 ▲비현실적인 대가 및 사업 규모 등을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최약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대기업 참여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선언했으나 업계는 “전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18일 <메트로경제>의 취재에 따르면 지난 1월 정부는 공공SW 대가 상향 등 폐단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공언했지만 감감 무소식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가장 최근 공모 사업 조차 별도 규칙 등 없이 과거와 똑같이 진행되고 있다.

출범 만 1년이 지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디플정위)는 지난달 12일부터 수백억원 대에 달하는 초거대AI 활용 지원사업에 참가할 기업을 공모를 시작했다. 디지털 정부 구축은 전적으로 정부가 아닌 발주 사업으로 진행된다.

초거대AI 플랫폼을 보유한 공급기업과 활용 수요를 가진 기관·기업을 매칭해 컨설팅, 시험테스트(PoC), 이 용료 등을 지원하는 ‘플랫폼 이용 지원사업’과 행정 효율화, 사회현안 해결 등을 위한 혁신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서비스 개발 지원사업’으로 구분해 공모하고 있다.

지난해 493억원에서 126억원으로 74%(367억원) 삭감되며 논란이 일었던 전자정부예산을 초거대AI 활용 지원사업 예산을 늘리는 데 성공하며 시작된 사업이다.

디플정위원회 김민표 정책기획국

장은 “디플정위원회는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그간 다양한 부문에서 공공부문 초거대AI 활용의 적용·검증을 추진해 왔고, 올해에는 공공서비스 성과 사례를 확대 창출하는데 집중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초거대AI 기반의 행정 효율성 향상 및 사회현안 해결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사업 공모를 확인한 IT 관계자 A씨는 “변한 게 없다”고 딱 잘라 지적했다.

<4면에 계속>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G20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총회회의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제1차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최 부총리. /뉴시스

인건비 줄여 인공지능 투자 IT업계, 작년 26만명 ‘해고’

경기침체 속 AI 중심 투자 불가피
경영 악화에 국내시장 철수 행진

한 때 잘나갔던 글로벌 IT기업들이 경기침체와 인공지능(AI) 도입이 가속화되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함께 국내 시장에서도 철수 수순을 밟고 있다. 이는 AI 중심으로 전폭적인 투자에 나서기 위한 비용 효율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글로벌 IT업계 감원을 집계하는 ‘레이오프’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IT 기업 1183곳에서 26만1997명이 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22년에 비해 58.8% 증가한 규모다.

실제 구글, 트위터 등 글로벌 IT기업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지난 1월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은 광고 영업팀 직원 수 백명을 해고했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직원들에게 ‘더 중요한 우선순위’에 투자하려면 어려운 선택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며 대규모 해고를 단행한 바 있다.

앞서 구글은 지난해 1월 전체 정규직 직원의 6%에 해당하는 약 1만2000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글로벌 채용 조직과 뉴스 부서를 대상으로 정리 해고에 돌입했다.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터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최근 트위터는 전체 직원의 35% 수주인 500명 이상의 인

력을 해고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클랜시 CEO는 “불행히도 회사의 규모를 적대화하기 위해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으며, 트위터 전체에서 500명이 넘는 인력을 감축하는 고통스러운 단계를 밟게 돼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글로벌 IT업계가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하는 이유는 생성형 AI 확대에 인한 비용 효율화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최근 AI를 중심으로 집중 투자가 필요한 시점에서 최대한의 비용을 감축하는 작업에 나선 것. 특히 IT업계는 코로나 19 팬데믹 당시 대규모 채용을 단행했지만, 최근 생성형 AI가 이들이 하는 업무를 대체하면서 인력이 기존만큼 필요 없어진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IT업계는 경기 침체와 고금리 여파로 경영 악화로 부진한 성과를 이어가면서 국내 시장에서도 연이어 철수하고 있다.

글로벌 게임사 유비소프트 한국 지사는 이달 30일부로 공식적으로 운영을 종료할 계획이다. 유비소프트코리아는 지난 9월 X 공식 계정을 통해 “최근 급변하는 게임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한국 지사 운영 종료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공지했다.

앞서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도 지난 2월 중순 한국 시장에서 철수했다. 당시 클랜시 트위터 CEO는 “망사 용료 비용 때문에 한국 시장이 성장하고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더 큰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공급망 교란·금융불안 등 3국 공조해야”

역대 첫 ‘한미일 재무장관회의’
최상목 “긴밀 협력해 적극 대응”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원자재 공급망 교란 및 금융시장 불안 등과 관련해, 한미일 3국의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국제사회에 표명했다.

최 부총리는 17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일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그간 다자무역은 효율성이 최우선시됐으나, 팬데믹과 지정학적(geo-economics) 분절화 등 공급망 교란을 겪으며 경제 안보가 또 다른 정책 목

표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를 계기로 열린 이번 3국 재무장관 간 회의는 사실 지난해 8월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 측면이 강하다.

역대 처음 열린 한미일 재무장관회의로, 최 부총리는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및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과 마주했다.

그는 “안정적인 무역·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요소로 인한 공급망 교란 등에 대해 한미일 3국 간 긴밀한 대화와 연대를 통해 전략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며 “실물경제 불확실성이 초래할 수 있는 금융 측면의 불안에 대해서도 3국

이 협력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자개발은행 개혁 등에 있어서도 3국이 적극 공조함으로써, 기후위기·지속가능성장 등 글로벌 도전에 대해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일 재무장관회의가 역대 처음 개최된 데 대해서는 “작년 8월 한미일 정상은 최초의 3국 간 회담을 통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강력한 연대를 천명했다”며 “우리 국민만이 아닌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의 안정과 번영을 목표로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는 점을 거론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여수도권 당선인들 “당 수도권 중심 재편” “비대위 빨리 출범시켜야”
▲ 총선 직후 윤 지지율, 11%p 하락한 27%... 취임 후 최저 (사진 뉴시스)

▲ 윤, 비서실장에 장제원 유력 검토...이르면 19일 인사
▲ 민주당, 수원지검·대검 찾아 ‘검찰 술자리 회유’ 항의... “감찰권 발동해야”



▲ 이재명, 박종철 열사 모친 조문... “희생으로 쌓아온 민주주의 후퇴” (사진 뉴시스)
▲ 홍준표 “유례없이 총선 말아먹은 한동훈, 다시 받아들이고 공간있나”

“세계최고 동박 생산을” 신동빈, 말레이 공장서 현장경영

(롯데 회장)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말레이 스마트팩토리 연산 6만 해외진출 전략적 생산거점 활용 “입지적 장점 활용 경쟁력 높여야”

신동빈 롯데 회장이 지난 17일 말레이시아 사라왁주 쿠칭에 위치한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스마트팩토리를 찾아 이차전지 소재 사업을 점검하고 현지 임직원을 격려했다고 롯데 측이 18일 밝혔다.

지난달 롯데이노베이트 자회사 이브이시스(EVSI)의 청주 신공장을 방문해 전기차 충전기 사업 현안을 직접 챙긴 이후 연이은 신사업 경영 행보다. 이번 방문에는 이훈기 롯데 화학군 총괄 대표와 김연섭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대표이사가 함께 했다.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는 2019년부터 말레이시아에서 동박을 생산하고 있다. 지난해 말 준공한 5·6공장에서 2만



신동빈 롯데 회장(오른쪽 두번째)이 말레이시아 스마트팩토리에서 생산을 마친 동박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롯데

톤의 추가 생산이 가능해져 말레이시아 스마트팩토리의 연간 생산 규모는 6만 톤으로 증가했다. 이는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의 전체 동박 생산량 중 75%에 달하는 규모다.

5·6공장은 올해 하반기 본격적인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롯데에너지머티

리얼즈는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생산량을 늘리는 등 말레이시아를 해외진출의 전략적 생산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동박은 구리를 얇게 펴 만든 막으로 2차전지 음극집전체에 쓰인다. 말레이시아 스마트팩토리에서 생산하는 제품

은 8μm(마이크로미터)이하의 얇은 두께가 특징이다.

신동빈 회장은 “말레이시아의 입지적 장점을 활용해 원가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세계 최고 품질의 동박을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본원적 경쟁력 강화를 통해 시장을 선도해줄 것

을 당부했다.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는 주요 고객사 판매량 확대와 신규 고객 수주를 통해 지난해 2022년 대비 11% 증가한 역대 최대 매출 8090억원을 기록했다.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말레이시아 스마트팩토리는 국내 대비 저렴한 전력비와 인건비를 바탕으로 원가경쟁력을 확보했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연중 기온과 습도가 일정해 동박 품질을 유지하는데 유리하며, 강우량이 풍부해 수력발전 기반으로 전력망이 구축돼 있다. 특히 수력 발전을 활용한 전력을 이용한다는 점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강조하는 해외 고객사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받고 있다.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는 현재 국내에 전북 익산과 말레이시아에서 생산시설을 가동하고 있으며 향후 유럽과 북미 시장 대응을 위해 스페인과 미국에 동박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간호학과 1000명 증원... “자연계 합격선 내려갈 수도”

전국 대학 간호학과 모집 80% 지방 지방권 수험생들에 변수 작용할 듯

2025학년도 대학입시에서 간호학과 입학정원이 1000명 확대되면서 자연계 입시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전국 대학 간호학과 모집인원 중 80% 이상을 지방권 대학이 차지하고 있어 지방 수험생들에게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전망이다.

18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5학년도 입시에서 전국 4년제 대학 간호학과

모집 인원은 113개교 총 1만806명이다. 이 중 지방권 대학 89개교 모집 인원은 8882명으로 전체 82.2%에 달한다. 서울권은 12개교 939명, 경인권은 12개교 985명으로 지방권 모집 비율이 압도적이다.

현재 지방거점국립대 9개교에서 간호학과 입학 수능 점수는 대학 내 자연계 전체 학과에서 상위 10%대에 달한다.

지방 국공립대 기준으로도 자연계 전체 학과 중 간호학과는 최상위권에 속

한다. 안동대는 자연계 25개 학과 중 간호학과가 1위였고, ▲군산대 19개 중 1위 ▲강릉원주대 7개 중 1위 ▲창원대 22개 중 2위 ▲목포대 8개 중 2위 ▲한국교통대 16개 중 3위 ▲공주대 53개 중 6위에 해당한다.

서울권에서도 간호학과는 서울대(일반전형)는 자연계 전체 37개 학과 중 5위, 연세대도 28개 학과 중 10위권에 위치한다.

이처럼 간호학과가 지역 내 상위권 학생들에게 관심 학과에 해당하는 가운

데, 정원이 증원되면서 서울·경인권 입시에도 영향력을 줄 수 있다고 종로학원 측은 분석했다.

특히 자연계 다른 학과의 합격선이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의과대학과 마찬가지로 간호학과 역시 ‘지역인재전형 30%’ 선발 의무화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1000명 늘어난 정원 중 지역인재 입학 비율 또한 최소 30% 이상 배정될 것이기 때문에 지방권 중하위권부터 중상위권까지 관



간호사가 지난 27일 서울 시내 한 종합병원 병동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다. /뉴스1

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자연계 입시에서 지역, 대학(증원) 배정 상황에 따라서 합격 점수에도 영향력 격차가 달라질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현진 기자 lhj@

함양
함양도약! 함께여는 함양

함양 Tour

힐링과 체험, 삶의 재충전! 함양군으로 오세요!

- #함양대봉산휴양밸리**
#대봉산 #스카이랜드 #캠핑랜드 #모노레일
- #개평 한옥마을**
#일두고택 #미스터션사인 촬영지
- #상림공원**
천연기념물 제154호 #상림 #천년의 숲 #산삼엑스포 #꽃무릇 #산삼주제관
- #지리산 가는 길(지리산 제일문)**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 #오도재 #지안재 #지리산제일문
- #남계서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사적 제499호 #정여창

끝 안보이는 '3高' 터널... 韓, PF 부실 우려 등 긴장감 고조

(고금리·고환율·고물가)

중동지역 전쟁 위기... 앞치는데 덮쳐
유가 상승시 금리·물가 등 영향
“부동산 PF 정상화 쉽지 않을 것”

이란-이스라엘 중동전쟁 우려가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서민물가 인상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위기 확산 등 한국경제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 서민들 공포 확산

중동전쟁 리스크가 한국 경제에는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동지역에서의 전쟁은 유가상승으로 이어지고 이 여파로 물가상승으로 연결, 금리 결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올 초 70달러 초반에서 머물던 서부 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은 배럴당 86달러까지 치솟았고, 브렌트유와 두바이 유 선물은 90달러를 돌파했다. 전쟁이 확산될 경우 국제유가는 2년 만에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 수 있다. 특히 국제 원유의 주요 운송로인 호르 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 13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동 원유의존도가 72%에 달해 수급 차질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17일(현지시각) 이스라엘 남부, 가자지구 국경 인근에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가자지구를 향해 박격포를 발사하고 있다. /뉴시스

유가가 치솟을 경우 수입물가 역시 상승하면서 무역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실제 올해 3월 기준 수입물가지수는 137.85(2015=100)로 전월(137.24) 대비 0.4% 올랐다. 수입물가지수는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달 연속해 하락했지만, 지난 1월부터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품목별로는 광산품(1.0%), 석탄 및 석유제품(1.0%), 제1차 금속제품(0.7%) 등이 올랐다. 소비자물가도 수입물가 오름세에 영향을 받아 상승 양상이 지속될 수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 1월 2.8%로 지난해 하반기 평균(3.3%) 대비 크게

감소했으나 2월과 3월에 농산물·유가가 오르며 3.1%로 꺾였었다. 수입물가 상승은 보통 1~3개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친다. 정부 입장에서는 물가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의미다. 4월 이후에도 수입물가 상승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물가 장기화로 인한 대출 금리 상승도 서민들의 공포를 키우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은행권 주담대 고정금리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5년, AAA) 금리는 지난 17일 기준 3.893%로 이달 초(3.737%)와 비교해 0.156%포인트(p) 상승했다. 채권금리 상승세가 이어지면 대출금리도 오를 수밖에 없다.

은행들은 시장의 기준이 되는 준거금리에 차주 신용도별로 매겨지는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금리를 산정하는데, 준거금리에 해당하는 채권금리가 상승하면 전체 대출금리를 끌어올리게 된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될 경우 채권금리 상승 추세는 지속돼 지난해 12월 이후 4개월 만에 4%대에 진입해, 주담대 금리가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에서 더 이상 주담대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해 현재도 조금씩 올리고 있다”며 “고물가가 지속되면 다시 금리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부동산 경기 '적신호'

금융당국이 발표한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현황'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으로 전체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135조 6000억원으로 2022년 말(130조 3000억원) 대비 5조3000억원이 증가했다. 연체율은 2.70%로 1년 새 1.51%포인트(p)나 늘어났다. 저축은행의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9조6000억원으로 1년 새 9000억원 감소했지만 연체율은 6.94%로 2022년(2.05%) 대비 3배 이상 상승하면서 부실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PF대출은 건설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보고 은행이 대출해 주는 것을 뜻한다. 건설사가 금융권 대출로 토

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올린 뒤 분양 수익을 내서 대출을 상환하는 구조다. 고금리 지속으로 부동산 경기 회복도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만기연장으로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던 사업장의 경우 금리인하 시점이 늦어지면서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사업장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국제 유가 상승과 물류비 상승 등은 자연스럽게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져 사업 악화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건설사 입장에선 이자부담으로 인해 수익성이 하락할 뿐 아니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이어져 미분양 물량을 늘릴 수 있다. 이번 중동 사태로 인해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서 부동산PF 정상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 분석이다. 실제 지난 2월 전체 건설공사비지수는 154.81(잠정)을 기록하면서 지난 2020년 1월 통계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이화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금융당국이 부동산 PF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와 근본적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며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주택 매매 수요침체로 수요 회복 전까지는 주택사업의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PF 경색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이복현 금감원장, 행동주의펀드 대표 간담회

“단기 수익만 쫓지말고 장기 성장전략 제시해야”

건전한 기업지배구조 마련 당부
“상생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 필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주주행동주의 기관들이 기업과 주주들에게 단기 수익만 추구하는 무리한 요구 대신 '장기 성장전략'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것을 당부했다. 기업과 주주 투자가 상생·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강조한 것이다.

이 원장은 18일 서울 여의도동 금융투자협회에서 행동주의펀드 대표들을 만나 '기업과 주주행동주의의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정태 금감원 공시·조사 부원장보를 비롯해 정기주총 자리에서 펀드와 대립했던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상장사 유관단체와 자본시장 전문가도 의견을 더했다.

주주행동주의 펀드를 대표해서는 황성택 트러스트자산운용대표이사, 강성부 KCGI 대표이사, 박형순 안다자산운용대표이사,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이사, 차종현 차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이사 등 주주행동주의 펀드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적으로도 주주행동주의 활동이 늘고 있다”는 말로 간담회를 시작했다. 이 원장은 이날 행동주의펀드 측에 “단기 수익만을 추구하는 무리한 요구는 기업의 장기 성장동력을 저해하고 자본시장 발전에도



18일 서울 여의도동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기업과 주주행동주의의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허정윤 기자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정기주총에 올라온 주주제안 93건 중 가결된 안건은 총 28건으로 열 건 중 일곱 건은 충분한 표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올해 가결된 안건 중 주주환원 관련 안건은 두 건 뿐이고 이사 선임 안건 등 26건의 가결율은 30%였다. 늘어난 접수 안건에 비해 저조한 셈이다. 이어 “올 주총 결과에서 보듯이 행동전략이 탄탄하지 못하면 주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공허한 캠페인으로 끝날 수 있다”며 “책임감과 투명성, 그리고 전문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설득력 있는 주주 활동으로 기업과 자본시장의 성장을 이끌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이 원장은 기업에는 주주와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기업은 주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주의 정당한 요구에 적극 소통해달라”며 “이제는 주주들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직접 주총 안건을 제안할 수 있는 시대”라고 언급했다. 또한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건전한 기업지배구조 마련을 당부했다.

이날 참석한 행동주의펀드 운용사들은 기업들의 비협조로 주주권 행사가 어려운 현실 전하며, 행동주의 기관 스스로도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회사의 장기성장 목표 간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도 인정했다.

기업들은 주주행동주의로 인해 기업 평판이 떨어지거나 경영 안정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주주 행동주의가 주주권의 강화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오지만 기업을 위한 제도 보완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장 유관기관들은 주주행동주의와 기업 대응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투자자들에게 주주환원 등 행동주의 활동이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공시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원장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기반으로 기업이 꾸준히 성장해 주주의 이익을 키우고, 주주는 그 이익을 다시 기업에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며 “금감원은 앞으로도 주주행동주의 활동과 기업의 대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韓, 최대 수출국 달라졌다... 美 > 中 '역전'

(310억弗) <309억弗>

전기차 등 친환경 제품 수출 증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뀌었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BOK이슈노트: 우리나라 대(對) 미국 수출구조 변화 평가 및 향후전망'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미국 수출액은 310억 달러로 2003년 2분기이후 21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 수출액(309억 달러)을 넘어섰다.

이는 미국 내 친환경 제품 수요가 증가하며 전기차, 이차전지 등의 수출이 증가한 영향이다. 다만 미국의 경우 무역역주지 적자폭이 커지거나 자국산업보호에 대한 여론이 고조될 때 무역제재를 강화한 사례가 있어 기술혁신과 인재확보 등 수출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미국 내수경기 회복세... 소비·투자 늘어

미국 수출이 늘어난 이유는 팬데믹 이후 미국의 내수경기가 회복되며 소비·투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미국 내수경기와 대(對)미국 수출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민간소비의 경우 팬데믹 이후(2020~2023년) 상관계수는 0.91로 전 기간(2000~2023년) 상관계수(0.56)의 2배수준이다. 내수경기 회복과 함께 수입 수요가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미국은 2022년 반도체 및 과학법안과 함께 청정에너지 기술과 관련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과시키는 등 산업구조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친환경 제품을 확대한 것이 주효했

다는 설명이다.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중국의 수입이 감소한 영향도 컸다.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비중은 2015~2019년 평균 20.7%에서 2000~2023년 16.7%로 4%포인트(p) 낮아졌다.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3.1%→3.5%, 베트남은 2%→3.7%로 늘었다.

남석모 국제무역팀 과장은 “제조업 FDI 확대는 선진국들과의 기술교류를 촉진하고, 그동안의 중국 중심 수출구조를 다변화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업들이 미국 투자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수출이 증가하는 흐름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 무역제재 우려... 수출 경쟁력 관건

한국은행은 중장기적(2~10년)인 관점에서 미국 수출이 지속되기 어려운 만큼 수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의 경우 무역역주지 적자폭이 커지거나 자국산업보호에 대한 여론이 고조될 때 무역제재를 강화한 사례가 있다. 앞서 2017~18년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FTA 재협상을 추진하거나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 등을 시행한 바 있다.

한국은행은 미국 수출이 지속될 수 있도록 품목을 다변화하고, 기술혁신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과장은 “에너지·농축산물 등으로 수출품목을 확대할 것을 검토해봐야 한다”며 “기술혁신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고, 첨단분야에서의 핵심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유리 기자 yul115@

이윤도 안 남는 공공SW 사업... 중견기업 “울며 겨자 먹기”

>> 1면 ‘정부24 먹통...’서 계속

IT예산, 선진국 수준 3% 올려야
정부, 해결책 ‘대기업 참여 완화’
중견기업들 “이윤 내기 힘들다”
“성장위해 오래된 악습 폐기해야”

A씨는 “27억 원 규모로 추진하는 플랫폼 이용지원 분야는 원래도 네이버와 KT 등 대기업이 참여했던 거대 산업 분야”라며 “올해 공급기업 참여조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도 공급기업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한다고 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상 중견기업 이상이 아니라면 참여하기 어려운 조건과 필수 요건들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서비스 개발 지원 분야 또한 공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여전히 별도 규칙이 존재하지 않고, 납품대가는 과거와 같다. 다른 말로 최저임금 미만이라는 뜻”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24 먹통 사태는 현 공공SW 사업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모두 드러냈다. 업계 관계자들이 지적하는 문제들은 ▲정당 대가 미지급 ▲컨트롤 타워 부재 및 소통창구 전무 ▲담당자의 업무연속성 보장 불가 등이다. 특히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는 문제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대가로 인해 전문성 없는 인력의 투입, 능력있는 기업의 위기 등으로 이어지면서 사고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등 SW 업계 17개 단체는 총선 직전인 지난달 6대 정책과제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정책 첫 번째로는 ‘소프트웨어 가치 인정 및 거래구조 개선’을 들며 공공SW 사업 정책 문제를 시급하게 꼽았다. 중견기업마저도 어렵게 하는 상황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현재 공공SW 사업은 기능별로 금액을 산정해 사업 수행 기업에 지불하는 기능점수(FP) 방식을 채택 중이지만 약 15년에 이르는 세월 동안 단 두차례 단가를 인상했다. 이 탓에 물가인상률은 물론 최저임금조차 못 지킨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심지어 사업 진행 중 과업 범위를 크게 늘리며 대가 없는 추가작업도 비일비재하다.

중견SW기업협회에 따르면 공공SW



지난 3월 공공운수노조 국민권익위공무직분회는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위택스(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 오류 조속 해결 촉구 및 콜센터 상담사 보호조치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1900억 원을 들여 공공SW 사업 방식으로 구축한 위택스는 2월 지방세 신고 마감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먹통이 되면서 법무·세무사무실을 곤경에 빠뜨렸지만 복구 후에도 계속 오류가 이어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지난해 11월 17일부터 닷새간 전국 행정 전산망이 먹통이 된 ‘정부24 먹통 사태’는 현 공공SW 사업이 가진 문제들을 고스란히 노출시켰다.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가와 여러 업체가 참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소통 창구, 업무 연속성이 없어 빠른 대응이 어려운 공무원 담당자의 현실 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지만 정부는 대기업 참여 제한 완화를 통한 해결을 선언했다. /뉴시스

W 사업을 이끈 중견 SI(시스템 통합) 기업들의 지난해 실적은 참담한 상황이다. 협의회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별도기준을 단순 합산했을 때 1.6%에 불과하다. B2B를 주력으로 하는 IT 대기업들의 평균 이익률은 두 자릿수가 흔하다. 포스코DX와 롯데이노베이트는 각각 71%, 66.3% 성장했고, 이들의 영업이익률은 5% 이상이다. 가장 높은 LG CNS는 8.3%다. 반면 중견 SI 기업들의 영업이익률 수치는 5% 이상은 없고, 3% 이하가 절반 이상에 달한다. 이는 중견 SI 기업들이 B2B 사업 대신 B2G 사업을 주로 하는 데서 기인한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최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부회장은 “이윤을 내기 힘든 현 공공SW 사업환경은 중견기업들에 울며 겨자 먹기 고 대기업들에게도 별 매력 없다”며 “국

가 전체 예산에서 IT예산의 비중이 1%가 안 되는데, 이를 선진국 수준인 3%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22대 국회에서 이런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정부가 내놓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공공SW 대기업 참여 완화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은 사실상 공공SW 사업의 일부를 제외한 전 영역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다. 먹통 사태 당시 국민의힘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술격차차분명하며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첫 번째 문제는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 제한인 만큼 국가기관 전산망의 경우 기술력 높은 대기업의 참여를 가능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주장과 현실은 또 어긋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인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공공 SW 사업의 대기업 참여 가능 여부를 심사한 50개 사업(기각 제외) 중 참여가 인정된 경우는 34건이며 인정 비율은 역대 최고인 68%에 달했다. 대기업의 입찰 참여 제한 예외를 규정한 2012년(인정 비율 25.0%)과 대비해 3배 가까이 늘었다. 클라우드 등 대규모 프로젝트 발주가 이어지면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이 산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게 된 탓이다.

지난해 공공SW 사업 환경 개선 및 정당대가 실현을 골자로 하는 SW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던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공공 SW 사업은 국민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 전반에 대한 편의성 제고와 산업의 시장 발전이라는 중대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공공 SW 사업의 무분별한 대가없는 과업변경은 정당한 사업대가 실현 저해 및 공공SW의 품질하락으로 이어져 산업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낮은 관행”이라며 “SW 산업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오래된 악습을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IT 업계 관계자는 “디지털 정부 구축이라는 장밋빛 슬로건 아래에는 가시밭도 아니라 쓰레기통이 있는 상황”이라며 “이대로라면 정부24 먹통 사태 후 3개월만에 유사 사례로 재연됐던 과거를 반복하게 될 것임을 알고 정부와 양당이 조속한 해결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디지털플랫폼정부위, ‘공공부문 AI 활성화’ 등 박차

제5차 전체회의... 6개 정책과제 발표
디지털 정부 전환 가속 등 위해 제시

지난해 4월 첫 디지털플랫폼정부(DPG) 청사진을 제시한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디플정위)가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6개 정책과제를 논의해 발표했다. 지난해 74% 삭감돼 논란이 일었던 전자정부 예산은 AI 활용 지원사업 예산을 5배 늘린 104억원을 확보함으로써 보완했다.

18일 디플정위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개인정보위원회 등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디플정위는 ▲공공부문 인공지능(AI) 도입·활용 활성화 ▲선제적·맞춤형 정부 혜택 통합 지원 서비스 제공 ▲종이없는 행정구현을 위한 원본 요구 법령 일괄정비 ▲농업 분야 국가연구데이터 종합관리 추진 ▲첨단기술과 민간 중심의 디지털플랫폼 정부 신속 구현 ▲국가 지식문화정보 개방 확대 등 6개 과제를 논의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 사이 민원 상담에 민원인과 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인공지능 도우미(AI)를 도입하고 1500종의 민원·공공 서비스에 대한 구비서류를 제거 후 온라인화 하며 꾸준히 디지털 정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6개 과제는 디지털 정부 전환 가속과 성과체감을 위해 제시됐다.

지난해 493억원에서 126억원으로 74%(367억원) 삭감되며 논란이 일었던 전자정부 예산은 초거대AI 활용 지원사업 예산을 늘려 보강했다. 올해 예산은 104억원으로 지난해 20억 원 대비 5배 많은 수준이다. 해당 예산은 ▲플랫폼 이용 지원 사(27억 원) ▲서비스 개

발 지원 사업(77억 원) 두 가지로 구분해 추진한다. 예산을 활용할 ‘초거대AI 활용 지원사업’에 참가할 기업 또한 12일 공모를 시작했다. 해당 사업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전담한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발표 1주년을 맞아 오늘 논의된 안건들을 포함, 손에 잡히는 혁신성과의 발굴을 통해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산업 성장에 보탬이 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완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14개 통화를 365일, 24시간 언제나

NH올원뱅크 내맘대로 외화BOX

비즈니스부터 여행까지
해외 갈 일이 많은 요즘
환율 걱정 없이 외화를
보관하고 꺼내 쓰는 방법



[2024년 4월 1일 ~ 4월 30일]

착한 마음 환전 이벤트

내맘대로 외화BOX로 환율우대도 받고
사회를 위한 기부에도 동참해 보세요!

최대 환율우대 90% + 사회공헌 10% = 100% 이벤트!



내맘대로 외화BOX
"BOX에 담기" 거래



영업점에서 현찰 수령
*이벤트 기간 내 거래에 한함



거래 시 발생하는
외화매매익 기부

지금 참여하기



* 「내맘대로 외화BOX」 서비스의 환율스프레드 우대율은 주요 통화(USD, JPY, EUR) 90%, 기타통화(CNY 등 11종) 40%입니다. ※ 상기 우대율은 별도 공지 시까지 적용되며, 추후 당행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내맘대로 외화BOX」 서비스에 대한 내용은 안내장 작성일 현재 기준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서비스 이용약관을 참고하시거나 가까운 농협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환율 변동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NH올원뱅크 이벤트 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가까운 NH농협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담당부서 : 외환사업부]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4-2213 (2024. 04. 01~2026. 03. 31)

野, 與 불참 속 ‘제2양곡관리법·가격안정화법’ 등 단독의결

농업민생 4법 본회의 직회부
野 “가격 변동성, 농가경영 위협
안정적 식량공급 어려움 초래”

與 “野, 협의 없이 일방적 처리
과잉생산 등 시장기능 잠식 우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간사 및 의원들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농업민생 4법 본회의의 부의 요구의 건 처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제2양곡관리법’과 ‘농산물가격안정화법’ 등 농업민생 4법을 단독으로 의결해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은 야당의 강행 방침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

이날 상임위에서 처리된 농업민생 4법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수직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농어업회소법 개정안이다. 이들 법안은 지난 2월 야당 주도로 단독 의결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상정되지 못하고 60일 이상 돼 상임위에서 다시 의결해 본회의로 직회부됐다.

특히,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은 쌀이나 주요 농수산물의 기준 가격을 정하고 기준 아래로 가격이 하락할 시 차액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정

부여당은 가격체제에 대한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이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장기적이고 상당한 재원이 소요된다며 법안에 대해 반대해온 바 있다.

국회 농해수위 야당 의원 일동은 농업민생 4법 처리 후 국회 소통관을 찾아 처리 이유에 대해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너무 커서 농가 경영을 위협할 정도이기 때문”이라며 “농가당 연평균 농업소득은 30년 전인 1995년 1047만원에서 2022년 949만원으로 9.4%나 감소했다. 그런데 물가상승을 고려한 실질소득은 56.3%나 하락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업경영 위협의 증가는

농업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국민을 위한 안정적 식량 공급에도 어려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따라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기준가격을 정하고, 시장가격이 이보다 하락했을 때 하락분의 일정 비율을 차액 보전하는 농산물 가격안정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우리나라 7개 광역 지자체와 62개 시군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부족한 지방 재정과 지역적 한계 때문에 지자체 힘만으로는 어려움이 많다”며 “국가적 차원의 제도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

인 국민의힘이 대안없는 반대만 하지 말고 21대 국회 임기내에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등 4개 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아울러 정부와 여당이 대안없이 반대만 계속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다.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은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법사위의 괴물같은 권한 때문에 그렇다”며 “법안도 법안이지만 제도에도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은 “(지자체에서) 가격안정제도를 하고 있는데, 이걸 법제화하는 것”이라며 “농업을 유지하기 위해선 농가 소득이 안정돼야 한다. 심은 작물이 1000원인데, 가격이 800~900원이면 1000원까지 차액을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할 아닌가”라고 설명했다.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 수순을 밟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신정훈 의원은 “동일한 법안을 그대로 한 것이 아니라 여당에서 반대한 의무조항을 삭제하고 가격안정제도 탑재해서 수정했다”고 주장했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대비 5~8%하락

했을 때라는 구체적 조건하에 정부가 쌀을 매입하도록 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선 장관이 미곡의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기준 이상으로 폭락하거나 폭락이 우려되는 경우 해당 연도에 생산된 미곡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또는 예상 생산량을 매입하도록 했다. 또한, 기준 이상으로 폭등하거나 폭등이 우려되는 경우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소속 농해수위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은 의사 일정과 안건에 대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말았다”며 “국회법을 무시한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라고 규정했다. 또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지난해 4월 정부의 재의 요구 이후 국회에서 부결된 ‘남는 쌀을 정부가 강제적으로 매수’하도록 하는 조항을 부활시켰다”면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과잉생산과 사회적 갈등을 부추겨서 시장기능을 잠식하고 오히려 농가소득 감소를 초래할 우려가 많은 제도”라고 반발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민주당 “이화영, 검찰청서 진술조작 모의... 대검 검찰 촉구”

野 대책위, 수원지방검찰청 방문
진상조사단 꾸려 총력 대응 나서
“수원지검, 수사 주체 아닌 대상”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지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의원들이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쌍방을 대북 송금 진술조작 의혹과 관련한 항의 방문에 앞서 수원지방검찰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이재명당 대표가 연루된 쌍방을 대북 송금과 관련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술판 진술 조작’ 의혹에 대해 수원지검을 직접 방문하는 등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의 자체 감찰을 요청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출석한 재판에서 김성태 전 쌍방을 그룹 회장 등의 대북송금 진술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수원지방검찰청에 참고라고 쓰여 있는 방에서 술자리가 있었다고 발언했다.

민주당은 자체적인 진상조사단을 꾸

리면서 해당 사안에 총력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지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검찰청을 방문해 기자회견을 열고 “이화영 전 부지사는 쌍방을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하여 법정에서 검찰청 안에서 연어, 회담밥, 소주 파티를 하며 진술조작을 모의한 상세한 정황을 진술했다”며 “사실이라면 정치검찰이 야당 대표를 탄압하고 그야말로 죽이기 위해서 ‘없는 죄’를 만들려고 한 수사능단이자 중대범죄 의혹이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법정 진술 이후에 2차례의 입장문을 통해 수원지검의 문제를 지적하고

대검의 감찰을 촉구했다”며 “하지만 대검의 공식적인 감찰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원지검은 장문의 알람을 통해 ‘명백한 허위’이며 ‘회유나 진술조작이 전혀 없었다’라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수원지검은 ‘진술조작’ 모의 의혹의 수사의 주체가 아닌 수사대상”이라며 “피의자가 본인의 죄에 대해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하면 명백한 허위가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대책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 대검찰청에 공식적인 감찰을 요구했다. 이들은 “수원지검의 증거인멸이나 증거조작, 은폐를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며 “대검이 정상적인 조직이라면 야당 대표를 상대로 한 진술조작 모의 의혹을 그냥 유야무야 덮어서는 안될 것이

라고 강조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교도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법무부 장관과 이번 수원지검의 지휘 책임을 맡고 있는 이원석 검찰총장은 당장 관련자들에 대한 감찰에 착수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해당 검사들을 고발하는 등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와 검찰도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철저한 자체 조사를 통해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야당 대표에 대한 허위 진술을 강요해 사법 질서를 농락하고 수사권을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전락시켰다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봤을 때도 지체 없는 진상 조사와 철저한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며 법무부와 검찰의 내부 감찰을 촉구했다. /박태홍 기자

與, ‘국민의미래’ 흡수합당 착수... 선거보조금 28억도 귀속

野도 같은 수순... 보조금 품수 비판

국민의힘이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 대한 흡수 합당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18일 당 상임전국위원회(위원장 이한승 의원)를 소집하고 국민의미래와의 흡수 합당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온라인으로 개최된 상임전국위 회의에서 ARS(자동응답시스템) 투표율 실시한 결과, 총 투표자 43인(투표율 70.49%)이 전원 찬성해 전국위원회 소집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오늘 22일쯤

전국위를 열어 ARS 투표를 통해 흡수합당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양당 수임 기구가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면 합당 절차가 최종 마무리된다. 해당 과정은 늦어도 다음 주말 전에는 완료될 전망이다.

국민의미래는 이번 총선에서 득표율 26.67%로 18명의 비례대표 의석을 할당 받았다. 양당이 합당을 완료하면 22대 국회의 국민의힘 의석은 지역구 90석과 비례대표 18석을 합쳐 총 108석이 된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미래는 지난달 선거보조금 28억 443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는 국민의힘이 국민의미래에 ‘의원 귀주기’를 한 덕분이다. 정치자금법 상 선거보조금 지급 당시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총액의 5%를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당이 합당하면 위성정당이 받은 선거보조금은 모(母) 정당에 귀속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도 같은 수순을 밟고 있고, 양당에 ‘위성정당을 통한 보조금 품수’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서예진 기자 syj@

홍준표, ‘총리 김한길, 비서실장 장제원’ 거론

尹과 만찬회동 사실 뒤늦게 알려

윤석열 대통령과 홍준표 대구시장의 최근 만찬 회동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현재 윤 대통령은 4·10 총선 이후 사의를 밝힌 한덕수 국무총리 후임 인선을 두고 속고 중인데, 여권에서 당 대표와 대선 후보 등을 지낸 홍 시장과 만난 것이다.

홍 시장은 이 자리에서 총리로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대통령비서실장에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을 추천했다

고 한다.

18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홍준표 시장과 서울 모처에서 만나 저녁 식사를 하며 향후 국정 기조 및 민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홍 시장은 “대통령비서실장은 정무 감각이 있고 충직한 인물, 총리는 야욕이 없고 야당과 소통이 되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는 김한길위원장, 차기 대통령비서실장 후보로는 장제원 의원을 추천했다고 한다.

/서예진 기자



청정원이 만들어서

호밍스가 맛있더라



초간편 조리,
최고의 만족
메인 요리

꼭~ 끓여
국물이 진한
국물 요리

집밥보다
맛있고 간편한
볶음밥



속이 딱 차고
피가 쫄깃한
만두

만족을 요리하다
HOME:ings
호밍스



낙곱새전골 / 제조원:대성(주)단양2공장,잇츠올레(주),(주)유정에이치앤에프 / 유통전문판매원:대성(주) | 촉촉한고기물만두 / 제조원:한일후드(주) / 유통전문판매원:대성(주)
남도추어탕 / 제조원:(주)그린2공장 / 유통전문판매원:대성(주) | 대게와랍스타볶음밥 / 제조원:디유푸드(주) / 유통전문판매원:대성(주)

간병비 급여화, 노인 임플란트 연령 하향 등 입법 관심

‘총선압승’ 野, 보험 관련공약 주목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자 늘리고
특정질환 로봇수술 보험적용 확대
보험업계 “관련영향 시일 걸릴 듯”

제22대 총선에서 범야권이 192석을 차지해 차기 국회에서도 입법 주도권을 잡으면서 향후 보험 관련 법안추진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치러진 국회의원 총선 결과에 따라 범야권의 보험 관련법 추진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책공약집을 통해 4대 비전(민생회복, 미래희망, 민주수호, 평화복원)을 발표했다. 그 중 민생회복 분야에는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보험 관련 정책이 포함됐다.

민주당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요양병원 간병비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건강보험으로 노인 간병 부담을 줄이고 간병 서비스의 질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비 건강보험을 적용해 요양병원 간병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영덕, 백승아 더불어민주당연합 공동대표 등이 27일 오전 충북 충주시 김경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충북 현상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의 및 22대 총선 비전 공동선언식에서 박수를 보내고 있다. /뉴스시

급여화로 사적간병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부적절한 장기입원도 방지한다.

윤석열정부가 중단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도 재추진한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인하 및 급여 확대, 특정 질환에 대한 첨단 로봇수술 건강보험 급여화 등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연령을 현 65세에서 60세로 단계적 인하한다. 6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을 2개 추가 지원한다. 전립선 암 등 치료효과가 명확한 특정질환에 대한 로봇수술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또한 간병(돌봄) 걱정 없는 노후 대

비 정책을 제시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 확장을 통한 공적 돌봄 대상 어르신 확대, 요양병원 간병지 지원을 통한 간병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어르신돌봄체계 구축 등에 나선다.

2022년 기준 전체 어르신의 10.9%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자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3.7%로 점진적 상향한다. 요양병원 입원시 보험 혜택에서 제외됐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 노인에게도 보험 혜택을 적용한다. 도심지역 어르신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을 확보하고 재가(방문) 요양·가사·간병·생활지원 등 서비스를 대폭 확충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자 비율 점진적 상향으로 2023년 기준 약 30만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약 10만명의 노인요양보험 수급권 어르신들이 요양병원 입원시 보험 혜택을 받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보험업계는 관련 정책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건보와 실손에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지만 정책의 방향성이 아직 그려지지 않아 관련 영향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책이 시행될 때 건보 재정에서 간병비의 경우 범위와 규모에 따라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영향은 있을 것”이라며 “만약 건보 급여 지급 항목에 간병비가 발생한다면 실손보험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지만 정책 방향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령화 시대이므로 간병비 대상군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으므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봐야한다”며 “특히 최근 요양실손 등 간병에 대한 상품 수요가 증가할 시기이므로 파생되는 보험 상품들이 출시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카드 News

KB국민카드 전통시장 매출액 5년새 34% 증가

지난해 전통시장 가맹점 매출액이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통시장 가맹점 데이터 5700만건 활용

KB국민카드는 전국 전통시장 가맹점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소비 데이터를 분석했다고 18일 밝혔다.

5년새 전통시장 매출액이 3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이용 회원수는 25%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시장을 방문한 회원의 18%는 신규 방문객이다. 신규 방문객 중 20대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주로 음식점을 방문했다. 신규 방문객의 연령 비중은 ▲20대(26%) ▲60대 이상(21%) ▲50대(20%) 순이다.

신한카드 전통시장 가맹점 무이자할부·캐시백

신한카드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카드혜택을 강화했다.

◆ 추첨 통해 최대 100만 포인트

신한카드는 전국 27개 전통시장과 제휴를 통해 가맹점 4000여곳에서 무이자 할부 및 캐시백을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최대 3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어 5월말까지 1만원 이상 결제 시 3000원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신한결제이 ‘내 타임라인’에서 응원 댓글을 작성한 고객 중 총 301명을 추첨해 포인트를 지급한다. ▲100만포인트(1명) ▲3만포인트(100명) ▲3000포인트(200명) 등으로 구성했다.

NH농협카드 ‘지금.휴가중’ 카드 디자인 대회 5관왕

NH농협카드가 국내의 디자인 어워드에서 5관왕을 달성했다.

◆ 배우 고윤정 광고모델

NH농협카드는 홍콩 HKDA에서 최우수상을 받고 런던, 한국 등에서 개최된 다수의 디자인 대회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18일 밝혔다.

디자인 어워드는 지난해 2월 출시한 ‘지금.휴가중’ 카드로 참가했다. 여행의 설렘과 즐거움을 표현하기 위한 디자인 전략을 구축했다는 설명이다. 켈린더, 카테일, 해외 풍경 등을 담았다.

‘지금’ 시리즈를 집중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배우 고윤정을 광고 모델로 선정했다. 지금 시리즈와 상호작용을 기대한다는 의견이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DGB대구은행, PRM 통한 기업대출 규모 10% 육박

기업금융전문가 中企 공략 성과
1인당 취급규모 일반 임직원 5배

DGB대구은행이 지난 2020년 도입한 ‘기업금융전문가(PRM) 제도’가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대구은행 전체 기업대출의 약 10%를 PRM이 취급했다. 대구은행은 퇴직금융인 채용을 통해 PRM 인원을 2배로 늘려 전국 단위 영업망을 확대할 계획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구은행은 지난 2월 말 시중은행·금융 공기업 지점장·부장급 퇴직자를 대상으로 기업금융전문가(PRM) 채용을 진행했다. 채용 분야는 기업금융·영업, 기업 여신 심사 부문이다.

이번 채용에서 대구은행은 50여 명의 PRM을 새로 임명했다. 별도의 영업점이 없는 충청도 지역에도 PRM을 총원했다. 금융권에서는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앞두고 영업망을 넓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대구은행이 지난 2020년 도입한 PRM 제도는 금융권 퇴직자를 단독 영입이 가능한 ‘1인 지점장’으로 채용하는 제도다. 각 PRM은 소속 영업점을 중심으로 지역 소재 기업을 방문해 금융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 상황에 맞는 맞춤형 금융 상품을 판매한다.

지난 2023년 말 기준 대구은행 소속 PRM 총원은 66명이다. 같은 기간 PRM이 판매한 대출액 규모는 3조1300억원을 기록했다. 전체 기업대출액인 33조3150억원의 9.4%다. 같은 기간 대구은행의 전체 임직원은 약 3100명으로, PRM 1인당 기업 대출 취급 규모는 일반 임직원의 5배 수준에 달한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금융권은 타 직종보다 퇴직 시기가 이른 편으로, 근무 여력이 남은 50~60대 퇴직자들의

재취업 의지가 크다”며 “퇴직자들은 PRM제도를 통해 기존 경력 및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만족도가 높고,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어 업무에도 적극적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중은행 전환에 앞서 전년도보다 많은 인원을 채용했고, 강원도 등 채용에서 제외된 지역도 시중은행 전환 이후 PRM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라며 “전환 이후 시·도 단위로 거점 영업점을 설치하고, 적합한 인력을 배치해 신속하게 영업망 확대에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 이후 기업대출 전략으로 ‘맞춤형·관계형 기업금융’을 추진하는 만큼 PRM의 역할은 더 커질 전망이다.

앞서 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전환 이후 모델로 ‘뉴 하이브리드뱅크’를 제시했다. 영업점 설치를 최소화해 금리 경

쟁력을 높이는 한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영업에 중점을 둔 개인 금융과 방문형·맞춤형 금융을 중점으로 하는 기업 금융을 병행해 성장시키겠다는 것.

또한 대구은행은 PRM 제도 확대에 따른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대출 건전성 평가에 매출·신용·자산 규모 등 재무적 정보에 더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진 평판 등 대안 정보를 복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전환에 따라 기존 평가 모델에 기존 재무정보 뿐만 아니라 등비 재무정보를 함께 활용하는 방안을 도입해 신용평가를 고도화할 계획이다”라며 “지역별로도 현지 인력을 채용하고, 이를 활용해 지역별 맞춤형 심사 과정도 함께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 청약 15대 1

DL이앤씨가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동 일원에 짓는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가 1:2순위 청약에서 평균 3.23대 1, 최고 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6일과 17일 양일간 진행된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 1:2순위 청약접수 결과, 총 79가구 일반공급 물량(특별공급 제외)에 해당지역과 기타지역에서 총 255명이 청약을 접수했다. 평균 청약 경쟁률은 3.23대 1이며, 최고 청

약 경쟁률은 15대 1을 기록했다.

최고 청약 경쟁률은 전용면적 84㎡ A 주택형에서 나왔다. 2가구 모집에 총 30명이 청약해 15대 1의 최고 청약 경쟁률을 보였다.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는 오는 23일 당첨자 발표를 진행한다. 정당계약은 5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이뤄진다. 1차 계약금은 1000만원 정액제와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제공해 초기 자금 부담을 최소화했다. /안상미 기자

현대캐피탈, 호주·인도네시아 사업 가속화

파라미트라 멀티파이낸스 인수
호주 법인 설립 작업도 착수

현대캐피탈이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 금융사 인수 작업을 마무리했다.

현대캐피탈은 인도네시아 여신전문 금융사인 ‘파라미트라 멀티파이낸스(Paramitra Multifinance)’를 인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인도네시아 법인은 후속 작업을 통

해 ‘현대캐피탈 인도네시아’로 탈바꿈한다. 다음해 4월부터 영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특히 디지털 서비스 강화에 집중했다. 차량 견적 산출과 대출 심사 업무 등을 처리하는 전용 앱을 새롭게 운영한다. 이어 자동승인 시스템을 도입해 업무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캐피탈 호주’ 설립 작업에도 착수했다. 오는 11월부터 호주 전역에서 영업을 펼칠 예정이다. /김정산 기자

“中 시장 잡아라”... 현대모비스, 오토차이나 참가 ‘활로 모색’



25일~내달 4일 베이징서 개최
BYD·지리 등 80여개 업체 대상
사전초청 프라이빗 부스 운영
양산가능 핵심기술 14종 선배

유럽 완성차 브랜드를 중심으로 지난해 최대 수주를 기록한 현대모비스가 중국 시장 공략에 고삐를 친다.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전동화 바람을 등에 업고 당초 목표액 53.6억 달러를 72% 초과 달성한 것으로 사상 최대 수주 성과를 기록했다. 이어 현대모비스는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고부가가치 핵심 제품을 중심으로 중국에서 새로운 사업 활로를 모색할 계획이다.



현대모비스 2024 북경모터쇼 부스 조감도.

현대모비스는 오는 25일부터 내달 4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2024 오토차이나’에 참가한다고 18일 밝혔다.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상해 모터쇼에 이어 올해 북경 모터쇼에 연달아 참가하며 중국 현지 영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고객사 대상 영업에 집중하기 위해 전시 공간은 사전 초청된 고객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프라이빗 부스’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현대모비스는 이번 모터쇼에서 중국에 진출한 다양한 글로벌 완성차 고객

사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영업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사전 초청된 고객사는 80여 개 업체, 470여 명이 달한다. BYD, 지리,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등이 대표적인 고객사다.

현대모비스는 이들 고객사 관계자들과 미래차 분야 고부가가치 핵심 제품을 중심으로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모터쇼에서 완성차 고객사에 선보이는 양산 가능 핵심 기술은 모두 14종이다. 현대모비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스위블(가변형) 디스플레이와 투명 디스플레이를 비롯해 증강현실 헤드업디스플레이(AR HUD), 독립형 후륜 조향 시스템, 차세대 노이즈 능동저감 기술(ARNC) 등이 대표적인 기술들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차세대 고사양, 고부가가치 핵심 제품으로 현지 부품 업체들과의 기술 차별화를 강

조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전시는 고객사와 접점을 확대하고 공격적인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 부품관이 아닌 완성차관 바로 옆 야외 공간에 전시 공간을 마련했다. 현지 및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 인접한 위치에 전시장과 개별 미팅 공간을 확보해 기존 고객사는 물론 잠재적 고객사와의 네트워크 강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전략이다.

한편 현대모비스는 중국 사업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중국 현지 거점을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사업 효율화에 나서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폐쇄적인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고객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전략적 수주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현지에 특화된 상품기획부터 개발, 수주 이후 양산에 이르는 전 부문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LG, 지구 지키기 ‘앞장’

LG전자, 타임스퀘어에 멸종위기 동물 띄운다

동물보호 캠페인 영상 공개
“지속가능한 미래 힘 보낼 것”

LG전자가 기후변화로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 알리기에 나선다.

LG전자는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LG와 함께하는 위기 동물 보호 캠페인’ 영상을 공개했다고 18일 밝혔다. 멸종 위기 종인 눈표범의 역동적 이미지를 3차원(3D)로 구현한 영상이다. 이는 오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LG전자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벌이는 환경 보호 활동의 하나다.

LG전자는 눈표범에 이어 올해 말까지 타임스퀘어 전광판을 통해 흰머리독수리, 바다사자, 그린란드 순록 등 모두 4종의 멸종위기종 관련 영상을 다룰 계획이다. 기후 변화로 멸종



LG전자가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서 ‘LG와 함께하는 위기 동물 보호 캠페인(The LG Endangered Species Series)’ 영상을 상영한다. /LG전자

위기에 처한 동물을 알리고 탄소 배출과 지구 온난화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기획했다는 것이 엘지전자의 설명이다.

또한 팔로워 790만명을 보유한 인플루언서 ‘세스’와 협업해 캠페인 주목도를 높일 계획이다. 세스는 뉴욕

거리에서 재치 있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어 유명해진 미국인 인플루언서로, 이번에는 타임스퀘어에서 멸종 위기 동물에 관한 손팻말을 든 모습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릴 예정이다.

LG전자는 이밖에도 독일에서 에너지 고효율 제품 판매금액을 기부하고, 태국에서는 해양 보호 자원봉사를 펼치는 등 환경 보호 캠페인을 이어간다.

정규환 엘지전자 북미지역대표는 “이번 캠페인으로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 고객들에게 LG전자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활동을 알리고 모두에게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힘을 보태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

LG화학, 잘피 서식지 2만㎡ 조성

작년 5만주 이상... 올해 2만주 계획

LG화학이 ‘블루카본’(푸른 탄소) 잘피 생태계 복원에 나선 지 1년 만에 잘피 균락지 면적이 2만 제곱미터(㎡) 증가했다. 잘피 외에 의한 탄소 고정량이 약 5.9톤(t) 늘어났다.

LG화학은 국내 민간 기업 최초로 지난해 시작한 바다숲 ‘블루카본’ 잘피 서식지 해양 생태계 복원 사업의 1차년도 추진 현황 및 성과 보고서를 18일 발표했다.

LG화학은 WLSKSGO 한국수산자원공단, 팽스카본(주), 희망친구기아대책 등과 함께 지속가능한 바다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4년간의 대장정을 시작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 앞바다 대경도 인근에 잘피 5만주를 이식하면서, 잘피 서식지 면적은 이식 이전 42.710ha(427,100㎡)에서 44.718ha(447,180㎡)로 약 2만 제곱미터(㎡)가 증가되었다.

‘잘피’는 바다 속에서 꽃을 피우는 해초류로 맹그로브 숲, 염습지 등과 함께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가 공식 인증한 3대 해양 탄소 흡수원인 ‘블루카본’ 중 하나이다. ‘블루카본(Blue Carbon)’은 바다와 습지 등 해양 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를, 육상의 탄소흡수원인 그린카본(Green Carbon)보다 탄소 흡수 속도가 50배 더 빠르고 탄소 저장 능력도 5배 이상 높다.

이번 보고서에는 LG화학이 ‘블루카본’ 잘피 서식지 복원을 위해 서식 후보지 조사부터 잘피 이식 방법, 최신 기술을 이용한 모니터링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잘피의 생존력을 높인 현황과 1차년도 성과를 담고 있다. 잘피 서식지 확대는 해양 생태계 보전 뿐 아니라, 탄소 감축 효과도 낼 수 있어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LG화학은 지난해 잘피 5만주 이식에 이어 올해에도 2만주를 추가로 이식할 계획이다. 목표대로 진행된다면 잘피 균락지는 2026년까지 축구장 14개 크기인 10ha 규모로 확장될 수 있다.

LG화학 CSR 팀 이영준 책임은 “올해 잘피 2만주를 추가로 이식하고, 최첨단 과학 기술에 기반한 모니터링과 관리를 통해 잘피 서식지 복원을 적극 추진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현대차그룹-도레이그룹, 미래 모빌리티 맞손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 등 공동개발

현대자동차그룹이 미래 모빌리티 경쟁력 확보를 위해 탄소섬유 및 복합소재 분야 세계 1위 기업인 도레이그룹과 협력을 강화한다.

현대차그룹은 도레이그룹과 미래 모빌리티 사업에 혁신 신소재를 적용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사옥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장재훈 현대자동차 사장, 송호성 기아사장과 송창현 AVP 본부 사장, 김흥수 GSO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도레이그룹에서는 닛카쿠 아키히로 회장, 오오야 미츠오 사장, 한국 도레이그룹 이영관 회장 등이 참석했다.

1926년 설립된 도레이그룹은 탄소섬유, 복합재료, 전자정보재료, 의료·의학, 수처리·환경, 수지케미칼 등 다양한 첨단재료 분야에서 고부가가치 제품을 전세계에 공급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다. 특히 도레이그룹의 주력 사업 중 하나인 탄소섬유는 경량화, 강도 및 내열성 등 우수한

물성을 갖춘 소재로 자동차, 항공기 등 모빌리티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협력으로 경량화 소재인 CFRP(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 등을 공동 개발해 모빌리티의 성능 향상 및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미래 모빌리티 상품에 신소재를 적극적으로 적용해 차별적인 제품 경쟁력을 선보이고 궁극적으로 모빌리티 산업의 혁신을 주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송창현 AVP 본부 사장은 “모빌리티 솔루션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전략적 파트너십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현대차그룹의 차량 기술 노하우와 도레이그룹의 소재 기술력을 결합해 글로벌 시장에서 퍼스트 무버로서의 경쟁력을 갖추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도레이그룹과의 이번 협력을 통해 전동화 및 SDV 영역뿐만 아니라 소재 분야에서도 근본적인 혁신을 추구하며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이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양성운 기자

삼성, 인도서 ‘2024년형 TV 신제품’ 공개

현지 TV시장 공략 속도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을 앞세워 인도 TV 시장 공략에 속도를 높인다.

삼성전자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인도 벵갈루루에 위치한 삼성오페라하우스에서 2024년형 TV 신제품 공개 행사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날 행사에서 3세대 AI 8K 프로세서 탑재로 처리속도가 2배 빨라진 ‘Neo QLED 8K’와 빛 반사를 최소화한 올레드(OLED) 등 경쟁력 있는 신제품을 공개했다.

삼성전자는 2024년형 TV 신규 라인업에 AI 기능을 탑재한 만큼 최근 성장하고 있는 인도 시장을 적극 공략할 방



삼성전자 모델이 2024년형 Neo QLED 8K와 삼성 OLED를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침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AI를 통해 접근성, 지속성, 보안성 등 분야에서 새로운 혁신을 끌어내고, 홈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재정의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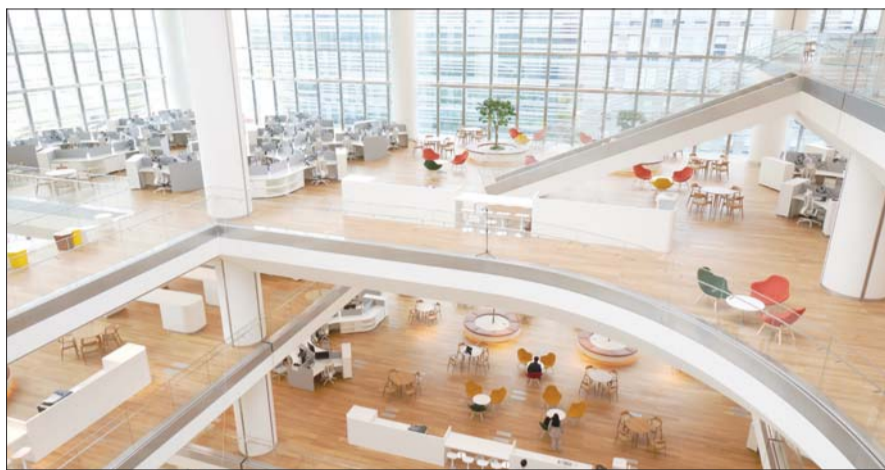
58개 전기차 특허 기술... 한국타이어, '아이온' EV시장 석권

‘아이온’ 등 자사 혁신 기술력 소개 북미·韓·中 등 기타 지역서 출시 OE 수주 전체량서 70% 이상 차지 ‘아이 사운드 업저버’ 등 특허 기술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가 미래 트렌드를 내다본 과감한 기술 투자로 전기차 타이어 관련 기술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지난 16일 한국타이어 본사 ‘테크노플렉스’에서 자사 혁신 기술력을 소개하는 자리가 열렸다. 전기차 타이어 브랜드 ‘아이온’의 기술력과 시장 점유율 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박정호 한국타이어 마케팅총괄 겸 경영혁신총괄 부사장은 “지난 2022년 출시한 전기차 전용 타이어 브랜드 ‘아이온’은 유럽을 비롯해 북미, 한국, 중국 기타 지역에 출시돼 현재 전기차 시장



한국타이어 본사 테크노플렉스 내부 전경.

/한국타이어

타이어를 선도 중이다”라고 말했다.

아이온은 급격히 성장하는 EV시장에 발맞추기 위해 만든 제품으로 기존의 ICEV(내연기관) 타이어와는 차별화된 특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전기차 타이어는 전비, 소음을 비롯해 더 무거운 하중을 버텨야 하는 등 내연기관차와 비교해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전기자동차의 해당 특징들을 연구해 이를 기반으로 제품 개발을 하고 있다. 또한 해당 결과물을 바탕으로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해줬을 때 가장 큰 만족을 줄 수 있는 방안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아이온은 OE(신제품에 들어가는 타이어)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

고 있다. 박 부사장은 “지난해와 올해, 한국타이어가 OE에서 수주하는 전체 수주량의 70% 이상을 새로 개발한 아이온 브랜드로 수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기차 모터스포츠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포뮬러E도 아이온의 기술력을 인정해 공식 스폰서십을 체결한 바 있다.

아이온의 기술력에 대한 소개도 이뤄졌다. 김승현 한국타이어 EV마케팅팀 팀장은 “아이온은 최적의 소음 성능과 노화를 견딜 수 있는 내마모성, 높은 그립 등 모든 것들을 집대성해서 개발해 왔다”고 설명했다.

아이온 브랜드에 적용된 기술력은 크게 4가지로 구성됐다. 소음 성능을 제공하는 ‘아이 사운드 업저버’, 최적의 그립력을 선사하는 ‘아이 퍼펙트 그립’, 낮은 회전저항을 적용한 ‘아이 익스트림 라이트니스’, 마일리지를 강화하는

‘아이 슈퍼 마일리지’다. 해당 기술은 한국타이어 고유의 58개의 전기차 특허 기술이 포함됐다.

테네시, 헝가리 공장 증설 계획도 소개됐다. 현재 미국 테네시에는 PCLT(승용차 및 소형 트럭용 타이어) 기준 연 700만본, TBR(트럭버스타이어) 100만본을 목표로 증설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헝가리에는 TBR기준 연 85만본을 목표로 증설을 진행 중이다.

박 부사장은 “2025년에는 미국에서 초회 제품이 나오기 시작할 예정이며 2026년에는 미국 내에서 양산이 시작된다”라며 “헝가리에서도 초회 제품들이 나올 전망이며 이를 통해 매출액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축구장 125개 크기에 13개 트랙... 시속 260km 극한 테스트도 ‘뚝딱’

단순한 오피스 공간이 아닌 예술 접목 개방성 극대화해 편안한 업무공간 ‘한국테크노돔’ 혁신인프라 핵심역할 ‘테크노링’ 고속주행 테스트 등 진행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 혁신 인프라를 통해서 기획, 개발, 테스트를 진행한 제품들이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우수한 성능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박정호 한국타이어 마케팅 총괄 겸 경영혁신총괄 부사장)”

지난 16일 한국타이어 본사 테크노플렉스에서 만난 박정호 한국타이어 마케팅 총괄 겸 경영혁신총괄 부사장은 자사 브랜드의 기술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한국타이어가 주관한 ‘2024 Hankook Experience Day’에서는 한국타이어 본사 ‘테크노플렉스’를 비롯해 ‘한국테크노돔’, ‘한국테크노링’ 소개가 진행됐다.

회사 인프라를 소개한 박정호 한국타이어 마케팅 총괄 겸 경영혁신총괄 부사장의 목소리에는 사업장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했다. 단순히 타이어를 만드는 것을 넘어 혁신적인 기술과 첨단 테스트를 통해 타이어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듯했다.

‘테크노플렉스’는 그 어느 건물과도 차원이 다른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단순한 오피스 공간이 아니라 마치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느낌을 주는 곳이다. 특히 ‘프로액티브 컬처’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오피스는 창의적인 업무를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 개방성을 극대화하여 편안한 느낌의 업무 공간을 만들고, 이를 통해 자율적인 소통과 창의성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중에서도 자연 채광이 돋보인다. 햇빛이 오피스를 밝게 비추어 주면서 마치 실내에 자연이 고스란히 스며든 듯한 아름다움을 더했다.

권자현 한국타이어 기업커뮤니케이션팀 선임은 “사옥 내 개방감을 더하면서 소통적인 공간이라는 이미지를 더했



한국테크노링 전경.



한국테크노돔 전경.

/한국타이어

다”라며 “사무공간이 딱딱해 보이지 않도록 심리적 안정감을 더할 수 있게 디자인됐다”고 설명했다.

건물 1층 로비와 3층을 연결하는 에스컬레이터 지점에는 테크노플렉스가 지향하는 소통과 수평적 문화, 자연을 상징하는 예술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이는 철제 케이블과 삼각형 LCD 스크린으로 식물의 덩굴과 잎사귀를 형상화한 하이테크 예술 작품인 ‘오쿨러스’다.

컴퓨터로 제어가 가능한 오쿨러스의 잎사귀는 건물 내부의 조명과 자연광을 반사해 길게는 계절이나 절기, 짧게는 하루의 각각 다른 시간대마다 색을 바꾸

며 다채로운 인상을 남긴다. 로비에 방문한 임직원들은 잎사귀 앞에 멈추어서 멋진 색채의 변화를 관찰하며 자연과 기술이 어우러짐을 감상하기도 했다.

이어 대전에 위치한 ‘한국테크노돔’을 찾았다. ‘한국테크노돔’은 한국타이어의 혁신 인프라 핵심역할을 담당하는 하이테크 연구소로 글로벌 R&D 네트워크의 선봉에 서있다.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등 최첨단 설비를 갖춘 전세계 각 연구소를 진두지휘하며 상품을 연구하고 원천기술 개발에 앞장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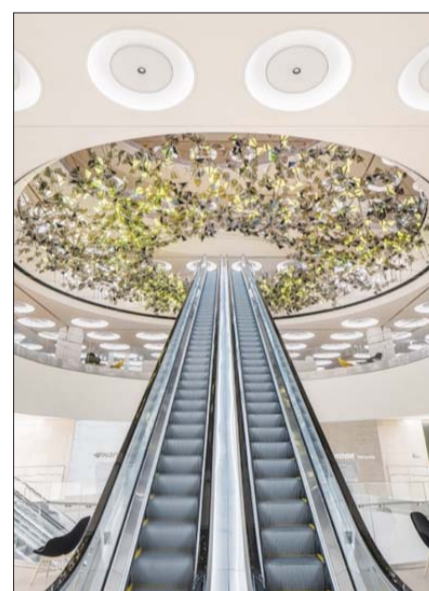
해당 연구소는 세계적인 하이테크 건축 거장인 노먼 포스터 경이 설립한 포

스터 앤 파트너스가 설계를 맡아 한국타이어만의 첨단 기술력과 비전, 문화를 직관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특히 연구소는 거대한 연못을 중심으로 자리하고 있었다. 연못에 모인 물은 순환되어 재사용되거나 건물의 온도를 조절하는 데에도 활용되고 있다.

조은선 한국타이어 R&D HR 책임은 “연못의 동그란 형태는 얼굴을, 양쪽 연못은 사람의 팔을 형상화해서 사람이 테크노돔을 들고 있는 모양을 형상화했다”라며 “각기 다른 공간에 위치하지만 ‘우리는 하나’라는 이념을 형상화했다”고 설명했다.

한국테크노돔에는 실제와 같은 환경에서 가상의 테스트 드라이빙을 진행하는 ‘드라이빙 시뮬레이션 센터’가 있다. 이곳에서는 실제 차량 운전 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타이어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다. 타이어 커브 앵글, 드라이브 브레이킹 조건 등을 입력하여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타이어의 반응을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다.

아울러 타이어를 장착한 채 주행할 때 발생하는 자동차의 모든 특성 값을 디지털화해 기록하는 ‘SPMM’, 타이어 소음 테스트 실험실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내부에 설치된 예술 조형물 ‘오쿨러스’.

기반으로 친환경 원료와 신소재 개발, 시뮬레이션 기술과 네트워킹 테크놀로지를 활용해 미래 드라이빙을 실현해 나간다.

이후 태안에 위치한 ‘한국테크노링’을 방문했다. 한국테크노링은 축구장 약 125개 크기의 부지면적 126만m²(38만평), 총 13개의 다양한 트랙을 갖춘 아시아 최대 규모·최장 테스트 노면을 보유한 테스트 트랙이다. 최고 속도 250km/h 이상의 고속 주행 테스트가 가능하며 전기차, 런플랫, 슈퍼카용 타이어처럼 신제품 개발 등에 필요한 타이어 성능 테스트가 이곳에서 이뤄진다.

전기차, 자율주행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 시장이 가파르게 확장되고, 글로벌 완성차 업계의 기술 니즈가 더욱 고도화됨에 따라 한국타이어는 하이테크 R&D 시설인 한국테크노링을 통해 다양한 도로와 극한의 환경에서 체계적인 실차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테크노링은 다양한 실차 데이터를 기반으로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구축하고, AI를 활용한 가상 최적화 기술을 개발하는 등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실현에도 기여하고 있다.

/차현정 기자

1 the hilt

스크리밍 이글의 또 다른 도전!
더 힐트, 당신의 마음을 꿰뚫다.



더 힐트 이스테이트 샤도네이

NARA CELLAR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美 증시 약세에도 코스피 2600선 회복... 환율 안정세 영향

ASML社 어닝쇼크에 반도체株 조정 하락 전망에도 코스피 상승 출발

환율, 이틀 새 30원 가까이 떨어져 外人 現·선물 순매수 유입도 긍정적

중동 정세 불안으로 고환율·고유가·고금리, '3고(高)'가 지속되면서 하락하던 국내 증시가 닷새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약세를 보였지만, 코스피는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약 2%대 상승에 성공했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4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2700선에서 2500선까지 내려왔던 코스피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57.84포인트(1.95%) 상승한 2642.02에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도 전장보다 22.62포인트(2.72%) 오른 855.65에 거래를 종료했다.

17일(현지 시간) 뉴욕증시는 네덜란드의 장비 업체 ASML의 '어닝 쇼크(시장기대치 큰 폭 하회)' 여파로 반도체



18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피가 전 거래일 대비 50.52포인트(1.95%) 오른 2634.70에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13.9원 내린 1372.9원으로, 코스닥지수는 22.62포인트(2.72%) 상승한 855.65에 거래를 마감했다. /뉴시스

등 기술주가 일제히 조정받았다. 1분기 주문 예약이 기대에 못 미친 ASML(-7.09%)을 중심으로 국내 반도체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엔비디아(-3.87%)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외에도 반도체주인 ARM(-11.99%)과 애플(-0.81%), 마이크로소프트(-0.66%) 등

대형기술주들이 모두 약세였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도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이날 코스피지수는 상승 출발하면서 장 초반부터 2600선을 회복했다.

국내 대표 반도체주인 삼성전자(0.89%)와 SK하이닉스(2.01%)도 상승

기류를 탔다. 이외에도 코스피시장에서는 수출주인 현대차(-1.07%), 기아(-0.80%)를 제외하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미국 증시가 약세를 보이자 국내 증시도 반등 동력을 잃고 주저앉았다.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와 환율 급등, 금리인하 가능성 축소 등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투심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특히 16일에는 순매수세를 지속하던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대거 이탈하면서 60.80포인트(2.28%) 급락하기도 했다.

다만 중동 지역 긴장감이 다소 완화됐다는 점과 원·달러 환율의 안정세가 주요하게 작용했다. 최근 급등했던 환율은 외환당국이 구두개입을 결정하는 등 공동 대응하면서 이틀 새 30원 가까이 떨어진 1372.9원에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은 690억원, 외국인은 5803억원을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주도했다. 다만 개인은 6578억원

가량을 순매도했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전일 미 증시가 비록 약세를 보였지만, 달러 약세가 진행된 점을 반영하며 한국 증시는 되돌림이 유입됐다"며 "특히 외국인의 現·선물 순매수가 유입된 점이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외국인 선물매도세가 몰렸던 지난 16일에는 코스피 200 선물시장에서 외국인 매도 금액이 1조6000억원대를 넘기면서 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었다. 외국인 투자자의 선물매도세가 1조6000억원을 넘긴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이다. 이날은 現·선물 시장에서 동반 순매수세를 보였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재보복을 연기하면서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됐다"며 "한국은행 총재가 IMF 춘계 회의에서 외환 시장 안정화를 재차 강조하면서 환율 급등세도 진정됐다"고 설명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부동산PF 부실 우려에도... 증권채, 거액 투자금 몰려

키움증권, 수요예측비 6배 웃돌아 교보·KB증권에도 1兆 넘는 자금 유입 리스크 확대에 안정적 투자처 찾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에 대한 우려에도 증권사들의 회사채 수요예측은 예상과 달리 거액의 투자금이 몰리면서 흥행에 성공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지난 16일 진행한 1500억원 규모의 회사채 수요예측에 모집 금액의 6배를 웃도는 약 1조1500억원이 몰렸다. 구체적으로 2년물 700억원 모집에 5800억원, 3년물 800억원 모집에 4350억원의 주문이 들어왔다.

키움증권은 개별 민간채권 평가사 평균금리(민평 금리) 기준 ±30bp(1bp=0.01%포인트)의 금리를 제시해 2년물

은 -10bp, 3년물은 -15bp에 모집 물량을 채웠다. 수요예측 성공으로 키움증권은 당초 회사채 규모의 2배인 최대 3000억원까지 증액 발행도 검토하고 있다.

교보증권과 KB증권의 회사채 수요예측에도 모두 1조원이 넘는 자금이 유입됐다. 교보증권은 1500억원 증권채에 1조5000억원의 자금이 몰려 발행 규모를 3000억원으로 늘렸다.

KB증권은 2000억원 회사채에 1조3200억원의 주문이 접수됐다. 1년 6개월 500억원에 3600억원, 2년물 700억원에 3200억원, 3년물 800억원에 6400억원이 각각 유입됐다.

이 같은 증권채에 대한 수요는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안정적으로 평가받는 증권사 회사채에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KB증권의 신용등급

은 'AA+(안정적)'이며 키움증권과 교보증권의 신용등급은 모두 'AA-(안정적)' 수준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우량한 신용등급에 실적 전망도 나쁘지 않다"며 "시장의 여유자금이 적절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그나마 안정적인 증권채에 유입된 것"이라며 "증권사들은 우량한 신용등급에 최근 실적 전망도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증권사들은 이번에 조달한 자금으로 만기가 돌아오는 기업어음(CP), 전자단기사채(전단채)를 차환해 만기와 금리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교보증권은 3000억원 모두를 4월에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차환에 사용할 것이라고 공시했고, KB증권은 25일부터 6월7일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4500억원 규모의 C

메리츠증권

찾아가는 절세상담 'Tax365' 유튜브에 시리즈 전편 공개

메리츠증권이 해외주식 투자에 관심 많은 이른바 '서학개미'를 위한 맞춤형 절세전략을 공개했다.

메리츠증권은 유튜브 채널 'Meritz On'에 찾아가는 절세상담 'Tax365' 해외주식편을 업로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의 국내주식과채권, 파생상품, ETF편에 이어 모두 5편의 'Tax365' 시리즈 공개가 완료됐다.

'Tax365'는 다양한 투자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금융상품별 적합한 절세 전략을 소개하는 콘텐츠다.

/신하은 기자

KB증권

공모주 청약 성공법 소개

KB증권은 공모주 청약 시 알아두면 유용할 '공모주 청약 성공법'을 18일 소개했다.

최근 신규 상장한 종목 중에는 상장일 '따따상(공모가 대비 4배 상승)'까지 기록하는 종목도 있는 가운데 이번 달에는 예상 시가총액 3조원대의 기업 가치를 보이는 HD현대마린솔루션을 포함해 제일엠앤에스, 민테크 등 공모주 청약 일정이 연달아 있어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

KB증권에 따르면 우선 청약 신청 전에 공모주 투자설명서를 꼭 읽어보면서 핵심 투자 위험과 공모가액이 적정한지 파악하고 기업공개(IPO)를 결정한 이유, 회사의 재무 상태와 손익을 분석하는 등 청약할 종목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 다음 해당 기업의 공모주 청약을 하고자 결정했다면, 주관 증권사의 계좌 개설을 완료해야 한다.

세 번째 방법은 공모주 청약 우대 조건을 확인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신하은 기자

은행, 홍콩 ELS 자율배상 '분주'... 증권사는 '조용'

증권사, 은행비 판매규모·민원 적어 가입자 "투자자 책임만 강조" 비판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해 은행권을 중심으로 자율배상이 속속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증권사들은 자율배상과 거리를 두고 개별 민원을 상대한다는 입장이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나는 행·신한은행·우리은행 등이 홍콩 H지수 ELS 손실 고객에게 첫 배상금을 지급했다. 투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은행들이 발 빠르게 자율배상에 나서는 모습이다.

하지만 증권업계에서는 자율배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는다.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신한투자·메리츠증권 등 대형 증권사 7곳은 홍콩 H지수 ELS 관련해 금감원의 현

장검사와 민원 조사를 받은 바 있지만 자율배상에 대한 계획은 전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증권사 관계자는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통해 홍콩 H지수 ELS에 투자한 고객들이 자율배상의 주요 대상"이라며 "증권사에서 홍콩 H지수 ELS 상품 가입하는 사람은 ELS에 상품 특성과 홍콩 H지수와 관련 상품 가입 시 투자 위험성을 아는 투자자가 많다"고 설명했다.

더군다나 자율배상에서 증권사가 멀어져 있는 이유는 증권사 전체 홍콩 H지수 ELS 판매 규모가 은행과 비교해 현저히 적다. 은행권 홍콩 H지수 ELS 판매 잔액이 15조4000억원(24만3000계좌)인 반면, 증권사의 홍콩 H지수 ELS 판매 잔액은 3조4000억원(15만3000계좌) 정도다. 게다가 금감원에 접수되는 홍콩 H지수 ELS 손실 관련 민원 수도

은행에 비해 증권사가 적다.

하지만 증권사를 통해 홍콩 H지수 ELS 가입자들의 입장은 다르다. 증권사를 통해 해당 상품을 구매한 가입자 A씨는 "증권사가 은행 뒤에 숨어서 자율배상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며 "투자자의 책임만 강조하고 증권사발 판매금이 적다고 소외당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홍콩 H지수 ELS 가입자 B씨는 "은행처럼 자율 배상을 할 수 없는 이유 '이사회 승인이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증권사들을 통해 해당 상품에 가입한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증권사도 홍콩 H지수 ELS 판매 당시 증권사의 불완전판매 정황이 포착된다면 개별 배상을 논의해볼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은행처럼



홍콩H지수(항셩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자율배상위원회'를 설치할 만한 판매 규모가 아니다"면서도 "민원 창구를 통해 사례를 종합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엔케이맥스, 이사회 정족수 미달”... 기업회생절차 무산되나

사내·외 이사 총 8명 이사회 구성
통보없이 등기임원 사임·복귀 반복
“안전 부결 하려 했는데 사임처리”

소액주주연대 “박 대표 해임 촉구
고의적 공시 지연, 벌점 20점 받아”



엔케이맥스 박상우 대표이사

최근 엔케이맥스의 기업회생절차를 결정한 이사회가 정족수 미달이어서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상우 엔케이맥스 대표는 지난 17일 이사회를 열고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의결했다고 공시했지만, 7인의 등기임원 가운데 3인만이 참여해 정족수 미달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이사회 멤버들은 “이사회는 정족수 미달로 정상적인 개회가 아니었고, 기업회생절차는 박 대표 개인이 밀어부친 결정이었다”며 “이사회 절차가 잘못됐다는 공문을 정식으로 보내고, 이사회 무효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혀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이사들 갑작스런 사임 ‘의혹’

18일 엔케이맥스 이사회 내부 제보에 따르면 지난 3월 28일 정기 주주총회 이후 엔케이맥스는 내부 임원인 박상우 대표이사과 조용환 운영총괄 부사장, 김용만 연구개발 총괄 전무 외에 송영호, 신용열, 정민영 등 총 6인의 사내이

사와 2인의 사외이사 등 총 8명의 등기 임원으로 이사회를 구성했다.

이사회 결의가 이뤄지려면 이사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해당 안건에 찬성해야 한다. 엔케이맥스의 경우 조용환 부사장의 사임으로 4인이 모여야 의결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난 9일 갑작스레 열린 이사회를 앞두고 하루 전날인 8일에 사내이사인 신용열 부사장, 송영호 대표이사 사임 처리됐다. 전인오 사외이사 역시 같은 날 개인사유로 자진 사임한다는 공시가 됐다. 하지만 이들은 회사측이 사임에 대한 통보나 협의를 한 적이 없고, 사임 사실을 알지도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9일 이사회를 진행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이사회개회가 무산이 되자 회사는 사임처리 했던 신용열과 송영호를 복귀시키고 17일을 이사회 소집 날짜로 재통보했다. 17일 이사회소집에는 신용열 부사장에게도 소집통보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회사는 16일자로 신용열과 송영호를 다시 사임처리했다는 이유로 정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7일 열린 이사회는 박 대표를 포함 3인만이 참여했고, 이사회 만장일치로 기업회생절차가 결의됐다. 이때까지 신용열과 송영호는 자신들을 사임처리했다 복귀시켰다 반복한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한다.

사임 처리된 이사 A씨는 “이번 회생 안전은 부결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사임 처리가 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알고 보니 주총에 선임된 이사들 모두 등기 처리가 되지 않았고, 이번 사임에도 본인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사임 처리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대표와 처음 미팅 당시에도 기업회생에 관한 얘기가 나와 회생을 쉽게 하면 안된다고 얘기를 했다”며 “기업회생절차는 채권단,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주식 반대매매를 맞아서 주식도 없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하려

고 하는지 이해가 안갔다”고 토로했다.

박 대표는 지난 1월 주식담보대출을 진행했다가 주가 하락으로 인한 반대매매를 당하며 지분율이 12.94%에서 0.01%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아 ▲최대주주 변경 지연공시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체결 지연공시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체결정정 지연공시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해제·취소 등으로 지난 3월 25일 한국거래소의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에 따라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기업회생절차 무효소송 낼 것”

기업회생절차가 가능할지도 미지수다.

엔케이맥스는 지난 5일 외부감사인으로부터 2023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 주요 감사절차의 제약을 사유로 ‘의견 거절’을 받았다. 의견 거절은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된다. 회사측은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된 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엔케이맥스는 영업 적자 폭을 점차 키우며 최근 3년간 총 1578억원의 영업손실을 입은 상태다.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감사보고서 기준 엔케이

맥스의 자본총계는 1120억원, 자본금은 414억원 규모다. 하지만 1000억원 가량의 종속기업처분투자이익을 빼면 실제 자기자본은 자본금을 크게 밑도는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이기 때문이다.

채권단의 반발도 거셀 전망이다. A씨는 “당연히 정족수 부족으로 이사회 진행이 안되는 상황이었는데 박 대표가 마음대로 진행해 공시까지 내 버린 상황”이라며 “정상 절차도 아니고 신뢰도 없는 상황에서 채권단이 동의를 해줄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측에 이사회 절차가 잘못됐다는 공문을 먼저 보내고, 그럼에도 이번 결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이사회 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투자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엔케이맥스 소액주주연대는 “회사의 미래와 수많은 주주들을 지키기 위해 박상우 대표의 빠른 해임을 촉구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연대는 “한국거래소에 직접 확인한 결과, 회사는 충분히 공시할 시간이 있었으나 박 대표의 고의적인 지연 공시로 한 번에 20점의 벌점이 부과된 것”이라며 “이 상황에도 박 대표는 본인의 지분율을 높일 수 있는 투자가 아니면 투자를 받지 않겠다며 거절하며 우리 주주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세경·최빛나 기자 seilee@metrosoo.kr

스마일게이트, RPG 부진... 6년만에 실적 ↓

지난해 홀딩스 영업이익 23.7% 줄어
매출 80%까지 RPG 매출 28.9% ↓

스마일게이트홀딩스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1조3813억원, 영업이익 4905억원을 기록했다.

18일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연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12% 감소한 1조3813억원, 영업이익은 23.7%감소한 4950억 원을 기록했다.

스마일게이트홀딩스의 영업이익이 감소한 건 2017년 이후 6년만이다.

스마일게이트홀딩스의 주요 자회사인 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와 스마일게이트RPG의 부진한 실적의 여파가 크다는 분석이다. 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와 스마일게이트RPG는 스마일게이트 그룹 매출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스마일게이트 로스트아크 이미지 /스마일게이트

‘크로스파이어’의 개발사 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매출 6671억원, 영업이익 3816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매출은 3.3% 늘었으나 영업이익은 8.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로스트아크’의 개발사 스마일게이트RPG의 경우 매출 5237억원, 영업이익 2690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8.9%, 26.1% 감소했다.

스마일게이트홀딩스의 지난해 개별

실적은 매출 6103억원, 영업이익 186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대비 각각 164.4%, 62.37% 증가한 수치다. 스마일게이트메가포트 및 스마일게이트스토브 합병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스마일게이트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글로벌 게임 시장 침체로 자사 실적도 영향을 받았다”며 “올해는 신작 출시와 로스트아크 대규모 업데이트 등으로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이처럼 실적 부진은 지난해 ‘2023 지스타’에 전시된 ‘로스트아크 모바일’ 출시로 이목이 쏠렸다.

로스트아크 모바일 출시 일정에 대해 스마일게이트 관계자는 “개발 진행 중이지만 출시 일정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파이프라인 확대를 노리는 스마일게이트는 올해 다양한 퍼블리싱 타이틀을 준비하고 있다. /최빛나 기자 vitna@

LG유플러스, IPTV서 미드 3종 독점제공

CSI·FBI 등 매주 금요일 공개

LG유플러스가 자사 인터넷TV(IPTV)에 ‘CSI: 베가스’, ‘FBI: 인터내셔널’, ‘NCIS: 하와이’ 시즌3 등 미국 CBS 콘텐츠를 국내 독점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미국 3대 지상파 방송사 중 하나인 CBS는 2000년대부터 ‘CSI: 과학수사대’, ‘FBI’, ‘NCIS’ 등 범죄수사물 시리즈를 제공하고 있다. ‘CSI: 베가스’, ‘FBI: 인터내셔널’, ‘NCIS: 하와이’ 시즌3 등은 19일부터 매주 금요일 새 에피소드가 공개된다.

LG유플러스는 2021년부터 ‘CSI: 베



가스’, ‘FBI: 인터내셔널’, ‘NCIS: 하와이’의 시즌1·2를 제공해 인기를 끌었다며 고객 경험을 지속 확대하기 위해 시즌3도 제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MESIM gSaaS’ CSAP SaaS 표준등급

메타빌드 연계통합 클라우드 서비스

메타빌드의 연계통합 클라우드 서비스 ‘MESIM gSaaS’가 17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미들웨어부문 국내 최초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SaaS 표준등급을 획득했다.

MESIM gSaaS는 메타빌드의 연계 통합미들웨어(ESB/APIG/IoT/Data

HUB/AI플랫폼) 제품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해 인프라/시스템 종류와 환경에 제약받지 않고,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형태로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로 제공하는 MESIM gSaaS는 성능, 확장성, 보안성, 모니터링 등을 최적화해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을 획득할 수 있었다. 이번 등급 획득으로 공공

기관 서비스 제공 자격도 갖췄다.

메타빌드 조풍연 대표는 “메타빌드의 AI LLM 모델, AI 플랫폼 및 연계통합 미들웨어 제품기술은 지원 품질·성능·실적이 높은 평가를 받으며 지난해에만 매출이 49% 이상 증가한 451억원을 달성해 초월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다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



HD현대오일뱅크, 바이오디젤 공장 준공

연산 13만톤 규모 상업가동 돌입

HD현대오일뱅크가 바이오 디젤 공장 준공을 시작으로 바이오 항공유, 선박유 생산의 발판을 마련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연산 13만톤 규모의 바이오 디젤 전용 공장을 상업 가동 하고 본격 생산에 돌입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산공장 내 1만2000평 규모의 바이오 디젤 공장에서 생산되는 바이오 디젤은 동·식물성 기름 등을 원료로 생산되는 연료로 석유 기반 연료와 성상이 유사하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다. 특히 바이오 디젤은 바이오 항공유나 바이오 선박유 등 바이오 기반 연료 중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상용화된 연료 중 하나로 국내에서는 현재 4%인 의무 혼합 비율이 2030년에는 8% 수준까지 높아질 예정이다.

이번에 준공된 HD현대오일뱅크의 바이오 디젤 공장은 국내 최초로 초임계 공정이 도입된 바이오 디젤 공장이라는 특징이 있다. 초임계 공정은 기존 바이오 디젤 공장보다 고온·고압 조건에서 촉매 없이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식용 원료인 대두유와 팜유는 물론 팜 잔사유와 같이 산도가 높아 처리가 까다로운 비식용 원료도 투입 가능해 기존 공법 대비 식량 자원의 존도를 낮출 수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

매운맛 소스, 스리라차 등 캡사이신 함량 최대 274배 차이

한국소비자연맹, 제품 20개 비교 나트륨 51배·당류 353배 차이 커 “소비자 구매·섭취 시 주의 필요”

시중에서 판매되는 매운맛 소스의 캡사이신류 함량이 최대 274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류나 나트륨 함량 차이도 커 구매·섭취 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연맹은 18일 매운맛 소스 총 20개 제품의 매운맛 정도, 영양성분, 안전성 등에 대한 시험·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시험 대상 제품은 ‘GOTCHU 핫소스’(CJ제일제당), ‘데일리 핫칠리소스’(이마트), ‘만능마라소스’(더본코리아) 등 국내 11개 제품과 ‘리고 루이지애나 엑스트라 핫소스’(웨이퍼), ‘스리라차 핫 칠리 시즈닝’(케이제이씨퍼니) 등 수입 9개 제품이다.

시험 결과, 조사대상 전 제품은 안전성 관련 기준에 적합했지만, 나트륨과 당류 함량, 매운맛 정도(캡사이신, 디하이드로캡사이신 함량)는 제품별로 차이가 컸다.

매운맛 정도 비교를 위해 캡사이신류 함량을 시험한 결과, 적게는 3.2mg/kg(케이-렉스리라차 소스/천하코퍼레이션)에서 많게는 877.2mg/kg(틈새소스/팔도)으로 매운맛이 최대 약 274배 차이가 났다. 캡사이신류는 고추에서 추출되는 무색의 휘발성 화합물로 매운맛을 내는 성분이다.

조사 대상 제품 중 1개 제품(틈새소스/팔도)만 매운맛 정도를 스코빌 지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가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시중에 판매되는 매운맛 소스 국내 11개 제품과 수입 9개 제품에 대한 실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수로 수치화해 표시했고, 나머지 제품은 매운맛 정도 표시가 없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매운맛은 개인 기호에 따라 느껴지는 정도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매운맛이 강한 경우, 설사, 속쓰림 등 부작용이 나타나거나 식품 본연의 맛을 가릴 수 있으므로 그 정도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트륨 함량의 경우 100g당 최저 756.98mg(벨라 핫 양념치킨소스/벨라푸드)에서 최고 2909.09mg(진돗개 핫소스/네키드크루)으로 최대 51배 차이가 났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나트륨 일일 권장 섭취량은 2000mg이다. 100g당 나트륨 함량이 2000mg을 넘는 제품은 ‘리고 루이지애나 엑스트라 핫소스’, ‘만능마라소스’, ‘스리라차 핫칠리소스’, ‘틈새소스’ 등 5개였다.

당류 함량은 저당으로 광고한 4개 제품과 당류가 불검출된 1개 제품을 제외한 15개 제품이 100g당 최저 0.1g(타바스코페퍼소스/오투기)에서 최고 35.3g(데일리 핫칠리소스/이마트)으로 제품 간 차이가 최대 353배 차이가 있었다. WHO의 당류 일일 권장 섭취량은 50g이다.

단위당(100g 또는 100ml) 가격이 가장 저렴한 제품은 데일리 핫칠리소스(이마트, 677원/100g)였고, 가장 비싼 제품은 타바스코페퍼소스(오투기, 5987원/100ml)였다.

안전성 시험 결과, 전 제품에서 대장균과 타르색소가 불검출돼 기준에 적합했고, 보존료의 경우 소보산, 파라옥시안식향산이 사용된 제품은 있으나 모두 기준치 이내로 적합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농어촌공사, 국가산업대상 ESG경영 수상

지속가능 부문 3년 연속 대상

한국농어촌공사는 18일 개최된 ‘2024년 국가산업대상’ ESG 지속가능 부문 대상을 3년 연속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산업정책연구원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공동으로 후원하는 ‘2024 국가산업대상’은 탁월하고 창조적인 경영활동으로 국가 산업과 경제 발전에 공헌한 기관에 주어지는 상이다.

공사는 농어업·농어촌 전문기관으로서 농업생산기반 정비에서 용수관리, 농지은행, 농어촌 활력 증진까지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공사의 고유 사업에 ESG 경영을 연계한 활동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021년에 ‘농어촌 사랑 GREEN가치

2030’을 ESG 경영 비전으로 선포한 이래, 공사는 사업에 부응하는 환경·사회·지배구조별 과제를 선정하고 ESG 경영위원회를 통해 중요사항에 대해 심의·의결, 자문, 점검하는 등 지속가능경영을 실현하고자 노력해 오고 있다. ‘농어촌 사랑 Green 가치 2030’은 농어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愛) 자연과 환경(Green)을 지키는 일을 국민과 같이(가치) 하겠다는 2030년 공사의 ESG 미래상이다.

더 나아가, 지난해는 전기료와 유류비 인상에 따른 냉난방비 증가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버섯재배사·양식장 등 234곳에 ‘저탄소 에너지사업 확대’로 연평균 55% 수준의 난방비용을 낮추고 농어촌의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폴리텍대, 다문화·씨름선수 등 이색 신입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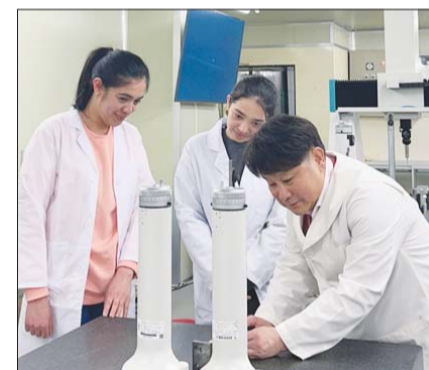
‘2년제 학위과정’ 신입생 소개 전 프로 씨름선수, 새 인생 설계

한국폴리텍대학에 외국인 입학자나 유턴 입학자 비율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씨름선수 출신에서 새 인생을 준비하기 위해 입학하는 등 이색 신입생도 눈길을 끈다.

18일 폴리텍대에 따르면, 2년제 학위과정인 경기안성반도체융합캠퍼스나 노측정과는 우즈베키스탄 출신 자매인 마무로바 파르비나 마무로브나(33세)와 하미도바 샤희조다 마무로브나(29세)가 나란히 입학했다. 이들은 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 어머니 재혼과 이주를 계기로 각각 19살, 15살 되던 해, 한국에 들어온 중도입국 자녀다.

이들 자매는 전문 기술을 익히고 국적을 취득해 한국에 정착하는 꿈을 갖고 있다. 파르비나는 지난해 불합격한 귀화시험 재응시를 준비하고 있고, 샤희조다는 한국 귀화 신청 후 승인 대기 중이다.

프로 씨름선수에서 새 인생 설계를



한국폴리텍대학 반도체융합캠퍼스 나노측정과 정현석 학과장이 파르비나(첫 번째), 샤희조다 자매에게 하이트 마이크로미터 장비를 이용한 높이 측정 실습을 지도하고 있다. /한국폴리텍대학

위해 입학한 경우도 있다. 폴리텍대 울산캠퍼스 에너지산업설비과에 다니는 김건형(23세) 씨는 중학생 때부터 11년간 씨름선수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김 씨는 “선수 생활 7년 차까지는 성적이 좋지 않았지만, 꾸준한 노력으로 8년 차부터 입상하며 성과를 봤다”며 “끈기 있는 자세로 전문기술인으로서 제2의 인생을 설계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울산 정전사태... “시공사 작업절차 미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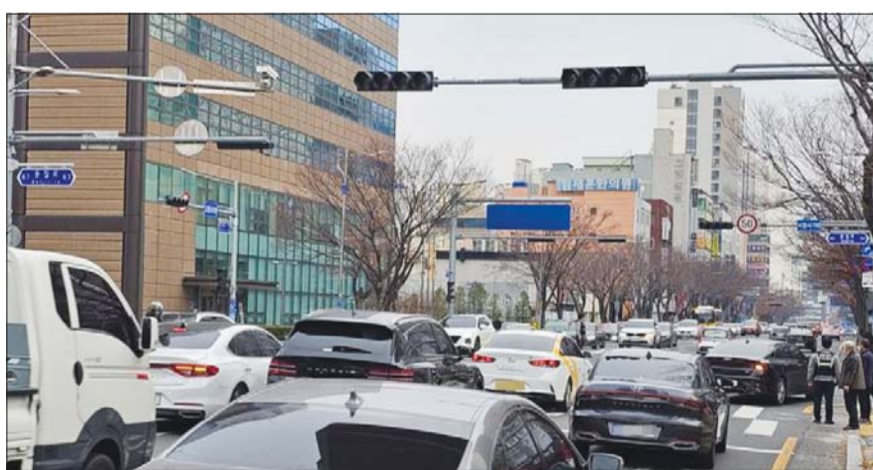
옥동변전소 고장원인 조사 결과 한전, AI 기반자동진단기술 도입 송·배전설비 관리체계 전면 개선

작년 연말 울산시 대규모 정전 사태 원인이 변전소 시공사 등의 작업절차 미준수와 관리 미흡 때문이었다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전력은 AI(인공지능) 기반 자동 진단기술 도입 등을 추진하는 등 송·배전설비 관리체계를 전면 개선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호연 에너지정책실장은 18일 지난해 12월 6일 울산 정전을 발생시킨 옥동변전소를 재점검하고, ‘옥동변전소 고장원인 조사반’의 조사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울산시 정전사태는 당시 1시간 50여 분 만에 복구 작업이 완료됐지만, 울산 일대의 15만 5000여 세대 정전이 발생했고, 신호등이 꺼지고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갇히는 등 피해가 속출한 바 있다.

한전은 복잡해진 전력망 여건과 설비 노후화에 따른 개선사항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위해 사고 직후 울산 옥동변전소 가스절연개폐장치(GIS: Gas Insulated Switchgear) 내부 파손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반을 구성해 133일간 조사를 벌였다.



2023년 12월 6일 울산 일부 지역에 정전이 발생해 울산시청 앞 도로 신호등이 꺼진 모습. /뉴시스

조사반은 옥동변전소 고장 원인이 시공사와 감리사의 작업절차 미준수, 작업 관리 미흡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GIS 교체 후 가스 누기 보수 작업은 작업 구간 이외의 밸브가 닫혀진 상태에서 이뤄져야 했지만, 일부 밸브가 열려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절연가스(SF6)를 빼는 절차를 진행해 GIS가 파괴된 것으로 분석했다.

조사반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업실수 방지를 위한 시공 및 감리 체계 강화, 작업절차 관리 강화와 안전규정 준수 등을 권고했다.

한전은 이날 옥동변전소 현장 재점검회의에서 정전으로 인한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송·배전설비 관리체계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전구간 축소를 위한 전력공급설비 이중화 체계를 구성하고, AI 기반 자동 진단기술 도입 등 2034년까지 약 4조원의 설비투자를 추진키로 했다. 한전은 또 피해 접수된 사항에 대해 손해사정을 거쳐 5월 중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호연 에너지정책실장은 “이번에 엄밀하게 조사한 옥동변전소 고장원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활용 및 메뉴얼 고도화 등을 통해 전력설비 관리체계를 전면 개선해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촌인구, 65세 이상 고령층 50% 돌파

통계청, 2023년 농림어업조사

국내 농촌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경영주의 경우, 70세 이상 나이가 절반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농가인구는 곧 200만 명을 밑돌 전망이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3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 기준 우리나라 농가 인구는 208만 9000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216만

6000명)과 비교해 3.5%(7만 7000명) 감소했다. 5년 전인 2019년(224만 5000명)에 비해서는 15만 4000명 줄었다.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층 비율은 52.6%로 1년 전(49.8%) 대비 2.8%포인트(p) 증가했다. 우리나라 고령인구 비율(18.2%) 대비 34.4%p 높은 수준이다.

연령별 농가인구를 보면 70세 이상이 76만 7000명으로, 전체 농가인구의 36.7%를 차지했다. 이어 60대가 64만 명(30.7%), 50대는 31만 2000명(14.9%) 순으로 많았다. /세종=김연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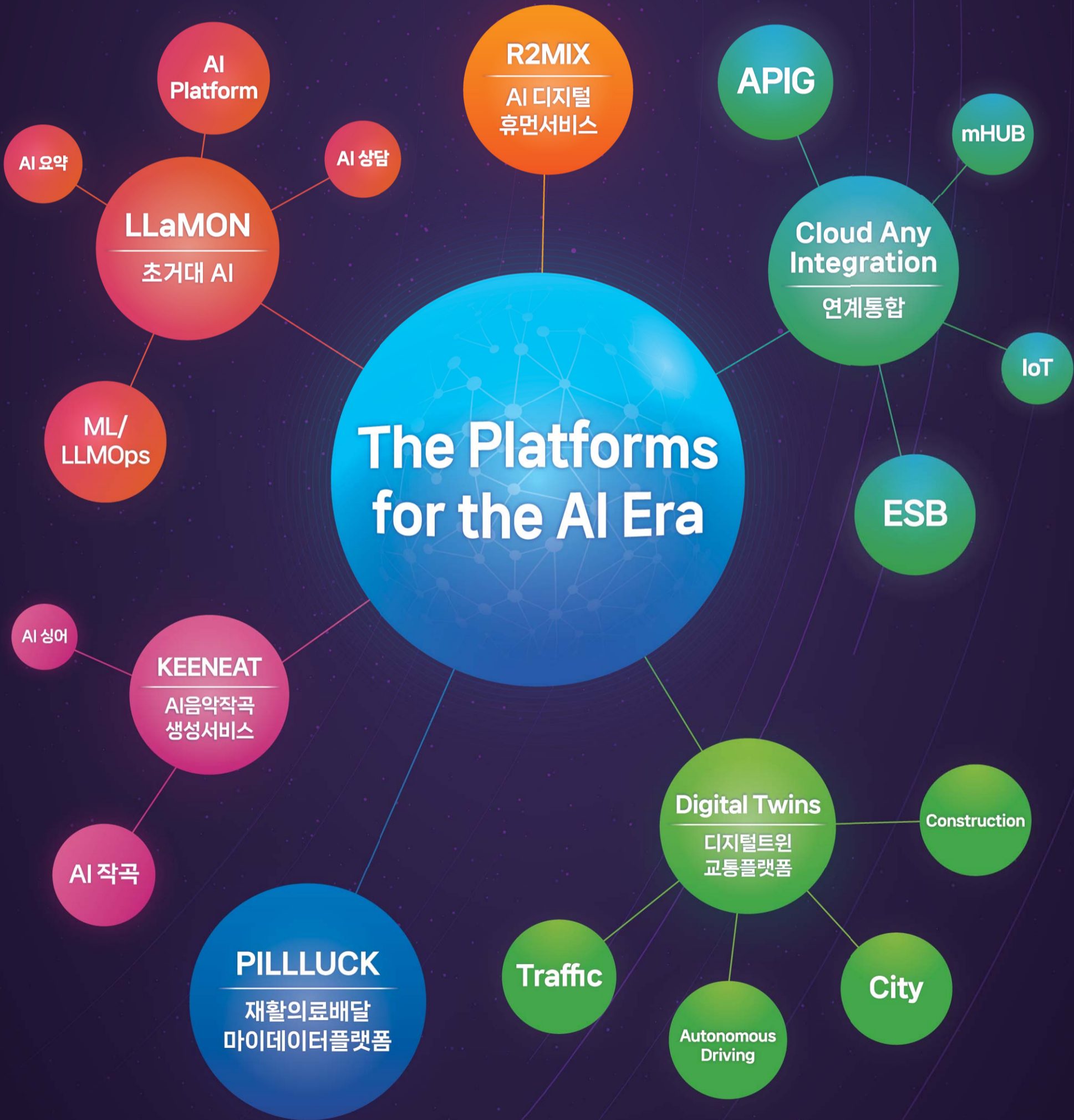


AI · 데이터 플랫폼 혁신 기업

Platforms for the AI Era

연계·통합 미들웨어 시장점유율 1등 기업에서

AI·데이터·디지털휴먼, 디지털트윈 교통·자동차·시티·건설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



경북도, 친환경에너지·농수산물로 몽골 시장진출 가속화

이철우 도지사, 울란바토르시 방문
그린도시·양수발전소 사업 맞손
몽골 최대 유통업체와 업무협약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북도 대표단은 17일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시를 방문해 경제 외교 활동에 나섰다.

먼저 최진원 주몽골 한국대사 대리와 만나 몽골의 현황을 듣고 경북 우수 상품과 기업들이 몽골에 진출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이어 아마르사이한 몽골 부총리와 만나 양 지역의 경제협력 및 경북의 그린에너지와 농수산물 등이 몽골에 진출하는 데 협조를 요청했다.

몽골 아마르사이한 부총리는 “경북은 친환경에너지 공급과 스마트팜 사업 모델 등 몽골이 필요로 하는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 관련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할 것이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울란바토르시청을 방문해 남바타르 시장과 협조방안을 논의하고 울란바토르시가 중점 과제로 추진하는 친환경에너지 공급과 그린도시 조성 및 양수발전소 사업 추진에 경북과 울란바토르시가 공동 협조하고 경북기업의 진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MOU를 체결했다.

또한 사업 세부 실행을 위해 경상북도개발공사와 몽골국립에너지센터, 울란바타르시 주택 정책공사 간의 상호



이철우 경북도지사(왼쪽)를 단장으로 한 경북도 대표단은 17일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시를 방문해 경제 외교 활동에 나섰다. 사진은 아마르사이한 몽골 부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경북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 외에도 경북 지역기업이 한국에너지공단 국비 공모사업으로 ‘몽골 울란바토르시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고 있고, 신북방 에너지산업 시장개척을 위한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 운영 및 실증사업(31억원, 2021.12.~2024.11.)에도 참여해 몽골의 광산업에 필요한 친환경 에너지공급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한편, 이 지사는 몽골 최대 유통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스카이 하이퍼마켓사의 자브스마 락바수렌(JAVZMAA LKHAGVASUREN) 대표이사와 몽골시장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 회사가 운영하는 울란바토르 이마트 향을 접에서 경북의 우수 농수산물을 시식, 판매하는 판촉전을

가졌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경북에서 생산한 수출 유망 식품을 발굴하고 시장개척을 위한 온·오프라인 유통망 활용 홍보·판촉 및 판매 확대에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통해 경북 농수산물의 몽골 시장 진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몽골은 세계 10대 자원부국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로 경북 기업들이 그린에너지와 도시개발 사업 등 몽골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몽골 등 한류 열풍이 강한 지역의 시장 개척을 통해 올해 농식품 수출 10억불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북=장영우 기자 ycyw57@metroseoul.co.kr

서울시, 연내 ‘1역사 1동선’ 100% 확보

교통약자 이용 편의성 ↑

서울시는 연말까지 ‘1역사 1동선’을 100% 확보하는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을 만들겠다고 18일 밝혔다.

1역사 1동선은 장애인, 노약자 등이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 외부에서 승강장까지 갈 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엘리베이터로 이동할 수 있는 동선을 말한다.

시는 현재 96.1%인 1역사 1동선 확보율을 연말까지 100%로 끌어 올린다는 목표다. 올 4월 기준 1역사 1동선이 확보되지 않은 역사는 마천·수락산·종로3가·상월곡·청담·구산·남구로·북정·고속터미널·신설동·대흥·상일동·까지

산역 등 13개다.

이와 함께 시는 지하철 승강장 발빠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5개역 25곳에 시범 설치한 승강장 자동안전발판을 내년까지 77개역 589곳으로 확대한다.

올 3월 기준 73.2%인 저상버스 도입률도 내년까지 100%로 올릴 방침이다. 교통약자의 저상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맞춤형 애플리케이션인 ‘서울동행맵’을 신규 개설하고 저상버스 승하차 예약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각장애인의 보행 안전을 위한 음향신호기는 연내 약 500대를 설치한다. 또 시각장애인이 횡단보도에서 보행 신호 등의 적·녹색 잔여 시간을 음성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음향 신호기의 기능도 개선할 계획이다. /김현정기자 hjk1@

이달부터 ‘서울야외도서관 시즌2’ 진행

11월 10일까지... 여름엔 야간 운영

(금~토) 문을 연다.

서울시는 이달 18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24년 서울야외도서관 시즌2’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개최 장소는 서울광장(책읽는 서울광장), 광화문광장(광화문 책마당), 청계천(책읽는 맑은냇가)이다.

‘책읽는 서울광장’은 목~일 주 4회, ‘광화문 책마당’은 금~일 주 3회, ‘책읽는 맑은냇가’는 4~6월, 9~10월 주 2회

한여름에도 시민들에게 끊임 없는 독서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휴장하지 않고, 운영 시간을 야간(오후 4~9시)으로 조정해 ‘밤의 야외도서관’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시는 강조했다.

올해 3년 차를 맞은 ‘책읽는 서울광장’은 공간을 전면 재구성한다. 가족, 친구와 앉아 책을 읽을 수 있는 2~3인용 ‘빈백(폭신한 의자)’을 비치해 화목한 독서 분위기를 선사한다. /김현정기자

교육부, 마이스터고 3곳 내외 신규지정

반도체 등 첨단산업분야 중심 지정
2년간 총 50억 준비금·컨설팅 지원
준비기간 거쳐 2026년 3월 개교

교육부가 올해 반도체와 디지털 등 첨단산업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3곳 내외를 신규로 지정한다.

교육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아 ‘2024년 마이스터고등학교’ 신규 지정 계획을 발표했다.

마이스터고는 산업계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로, 교육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중등직업교육 발전방안’에서 2027년

까지 65개교를 육성해 나갈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현재 전국 54개 마이스터고가 운영 중이며, 지난해 대구전자공고, 예산전자공고, 경북소프트웨어고 등 3개 학교가 추가로 지정돼 내년 마이스터고 전환 및 개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3개교 신규 지정에 이어 올해도 반도체·디지털, 첨단부품·소재를 포함한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3개교 내외를 지정한다.

올해 마이스터고로 신규로 지정되면 2년간 총 50억원의 개교 준비금과 전문가 교육과정 개발·운영 상담(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정된 학교는 개교 준비 기간을 거쳐 2026년 3월에 마이스

터고로 개교하게 된다.

마이스터고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학교 또는 법인이 시도교육감에게 마이스터고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에 마이스터고 지정 동의를 요청하면, 오는 9월까지 교육부의 지정 동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시도교육청이 마이스터고를 지정하게 된다.

최창익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신산업·신기술 분야에 대한 인재 수요가 날로 증가하는 만큼, 마이스터고가 중등직업교육의 선도모델로서 고졸 기술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ihj@



경주시를 포함한 4개 원전소재 지자체(기장, 울주, 영광) 출신 대학생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17일 대학생 연합기숙사 착공식을 했다.

경주시, 수도권 거주 대학생 주거안정 추진

경주, 기장, 울주, 영광 출신 위한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 착공식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주시를 포함한 4개 원전소재 지자체(기장, 울주, 영광) 출신 대학생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대학생 연합기숙사가 첫 삽을 떴다.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 착공식이 지난 4월 17일 서울 용산구 신계동(3~8번지) 일원 건립부지에서 개최됐다. 이날 착공식에는 주낙영 경주시장을 포함한 정종복 기장군수, 이순걸 울주군수, 김석기 국회의원,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임종일 국가철도공단 부이사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사업은 교육부가 국토교통부 소유

의 국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사업비는 한수원 지원 사업비 460억 원을 투입해 조성된다. 올 4월 착공, 2026년 준공 및 1학기 개관 예정이다. 연합기숙사는 대지면적 3698㎡, 연면적 1만2082㎡에 지하 3층, 지상 15층 규모, 299실로 건립된다. 총 595명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

향후 시는 연합기숙사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지역 출신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학생들 간 정보 교류와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는 거점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으로 수도권 대학생들의 주거 문제와 경제적 부담을 함께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경주(경북)=이상호 기자 leesh0412@

서울시교육청, 학생 선수 학습권 보호 ‘박차’

일반 학생과 ‘또래 멘토링’ 진행
내주부터 맞춤형 학습플래너 보급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4월 중 관내 모든 학생 선수에게 ‘학생 선수 맞춤형 학습플래너’를 배부하고, 연말까지 ‘학생 선수 또래 멘토링’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근 학교체육진흥법이 개정 시행돼 학생 선수 최저학력제도

변화에 따라 학생 선수 학습지원을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우선, 시교육청은 학생 선수와 일반 학생이 서로에게 교사 역할을 하는 ‘학생 선수 또래 멘토링’을 5월 초부터 진행한다. 이 제도는 학생 선수는 일반학생에게 교과 지식을 배우고, 일반학생은 학생 선수에게 스포츠 지식을 배우는 상호 멘토링 방식으로 운영된다.

희망하는 중·고 학교운동부 소속 학생 선수들이 참여할 수 있으며, ‘학생

선수 또래 멘토링’ 결과는 관련 절차에 따라 학교장 확인을 받은 후 학교생활 기록부에 그 내용을 기재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서울대 및 체육진흥교육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개발한 ‘학생 선수 맞춤형 학습플래너’를 학교 운동부 소속 9000여명 학생 선수에게 오는 22일부터 보급한다.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지 않은 학생 선수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학교체육’ 포털에 공개한다.

‘학생 선수 맞춤형 학습플래너’는 자신의 훈련과 학습을 모두 스스로 관리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는 마인드맵 형식의 일일기록지이다. /이현진 기자

SK바이오팜, 통증치료제 기술이전 中 합작사와 5800만 弗 규모 계약

통증치료제 후보물질 'SKL22544' 中 이그니스 테라퓨틱스 판권 이전 해당물질 임상 2단계 가속화 전망

SK바이오팜이 글로벌 빅 바이오텍으로 도약하기 위해 내외부 파트너와의 협업에 나선다.

SK바이오팜은 중국 이그니스 테라퓨틱스와 비마약성 통증 치료제 후보물질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SK바이오팜은 비마약성 통증 치료제 후보물질인 'SKL22544'와 그 백업 물질들의 글로벌 개발 및 판권을 이그니스 테라퓨틱스에 이전한

다. 계약 규모는 총 5800만 달러로, SK바이오팜은 계약금 300만 달러와 최대 5500만 달러의 개발 및 마일스톤을 받는다. 추후 매출액에 따른 로열티도 수령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계약에는 해당 파이프라인의 임상 약효가 어느 정도 확인되는 시점까지 미국 시장에 대한 권리를 SK바이오팜이 되살 수 있는 우선협상권이 포함됐다. 또 한국 시장의 경우 SK바이오팜의 의사에 따라 무상으로 권리를 이전받을 수도 있다.

'SKL22544'는 비마약성 통증 치료제 후보 물질로, 소문체널 저해제를 작용기전으로 한다.

SK바이오팜은 이번 계약을 통해 해

당 물질의 개발이 임상 2상 단계까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그니스 테라퓨틱스 또한 기존 중추신경계 파이프라인에 더해 통증 치료제 분야의 파이프라인까지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그니스 테라퓨틱스는 SK바이오팜과 중국 상해 소재 글로벌 투자사 '6 디멘션 캐피탈'이 지난 2021년 합작 설립한 중추신경계 전문 중국 제약사다.

SK바이오팜은 뇌전증 신약 세노바메이트를 포함해 6개 중추신경계 신약의 중국 판권을 이그니스에 기술수출해 1억5000만 달러 규모의 지분을 획득한 바 있다. 현재 SK바이오팜은 이그니스 1대 주주로 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방경만 KT&G 사장이 취임 약 3주를 맞은 지난 17일 직원들과 '캐주얼 미팅'을 가지며 본격적인 소통경영에 나섰다. 사진은 방경만 사장(왼쪽 세 번째)과 직원들이 다과를 즐기며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모습. /KT&G

방경만 사장, 직원 20여명과 '캐주얼 미팅'

KT&G 서울사옥서 소통의 시간

방경만 KT&G 사장이 '캐주얼 미팅'을 가지며 본격적인 소통경영에 나섰다.

KT&G는 방경만 사장이 지난 17일 서울사옥 20층 라운지에서 다양한 직무와 직급의 직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형식적인 식순이나 사회자 없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방 사장과 직원들은 스탠딩 테이블에서 음료와 다과를 즐기며 격식 없는 캐주얼 미팅을 진행했다.

이날 방 사장은 1998년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27년 만에 대표이사라는 중책을 맡게 된 본인의 성장 스토리를 직원들과 공유하고 회사 선배로서 업무 경험과 노하우 등 진솔한 이야기를 전했다. 또한 회사의 중장기 비전과 성장 전략에 대해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취미와 관심사 등 업무 외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도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눴다.

지난달 28일 신입 대표이사로 선임된 방경만 사장은 취임 당일 곧바로 KT&G 충남본부와 서대전지사를 방문하며 영업 현장 소통에 나섰다. 또 이번 캐주얼 미팅을 시작으로 직원들과 적극적인 소통 행보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새로, MZ에 '인기'... 연매출 1000억 기염

살구과즙 넣은 '새로 살구' 선보여
엠베서더 '구미호'로 차별화 성공

롯데칠성음료의 제로 슈거 소주 '새로'가 MZ세대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새로'는 2022년 9월 14일 출시 이후 4개월여 만에 누적 판매량 5000만병을 돌파했으며, 출시 7개월여만에 누적 판매 1억병을 돌파했다. 이러한 상승세는 지난해까지 이어지며 연 매출 1000억 원을 돌파, 제로 슈거 소주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잡았다.

이달 중순부터는 진짜 살구 과즙을 더한 '새로 살구'를 새롭게 선보이며

제품 라인업을 확대한다.

'새로'의 인기요인으로는 차별화한 마케팅을 꼽을 수 있다. '새로'는 한국의 전래동화부터 최근의 영화, 드라마에서 다양한 느낌의 매력적인 존재로 등장하는 구미호에서 따온 '새로구미(새로+구미호)'를 출시 때부터 브랜드 엠베서더 캐릭터로 선정하고, 제품 전면에 배치해 기존 소주 제품들과의 차별되는 이미지를 부여했다.

출시 초에 선보인 '소주 새로 탄생 스토리' 콘텐츠에는 사람의 간을 탐했던 구미호가 '새로'와 함께 '새로구미'로 다시 태어난 이후의 에피소드가 담겼다. 올 4월부터는 새롭게 선보인

'새로 살구'와 기존 '새로'가 조화된 새로운 내용으로 보다 확대된 '새로'의 세계관이 담긴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이다.

또한 '새로'는 지난해 4월, '새로'를 생산하는 롯데칠성음료 강릉 공장에 브랜드 체험관을 리뉴얼 오픈하며 '새로'의 탄생 스토리 및 '새로', '처음처럼'에 대한 브랜드 히스토리 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 출시 1주년을 기념해 같은해 9월 성수동에서 팝업 행사를 전개했다. 이어 올해 2월 대전에서도 팝업 행사를 열었으며 소비자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으며 성료됐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CJ올리브영, 매장에 휴대용번역기 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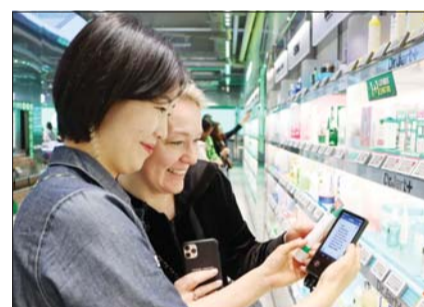
美·中·日 등 16개 언어 실시간 통역
핵심소비층 외국인 고객 소통강화

CJ올리브영이 K뷰티의 핵심 소비층으로 떠오르고 있는 외국인 고객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CJ올리브영은 전국 매장에 휴대용번역기를 도입했다고 18일 밝혔다.

휴대용 번역기는 영어, 중국어, 일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몽골어 등 16개 언어를 실시간 통역할 수 있다. 번역기에 탑재된 카메라를 활용한 번역 기능도 갖췄다. 사진이나 캡처 화면을 인식해 내용을 번역하기 때문에 고객이 찾는 상품이나 성분을 정확하게 추천하는 것이 특징이다.

올리브영에 따르면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올리브영에서 외국인 고객이 사후 면세 혜택을 받는 구매 건수는



올리브영 명동 타운 직원이 휴대용 번역기를 활용하여 외국인 고객을 응대하고 있다. /CJ올리브영

370만 건에 달한다. 이에 대해 올리브영은 방한 관광객의 절반가량이 올리브영을 방문해 K뷰티 상품을 구매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관광지식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023년 관광 목적으로 한국을 찾은 외국인 수는 약 880만 명이다.

/이청하 기자

더후 '비첩 자생 에센스 4.0' 글로벌 공개

LG생건 '비첩 NAD+ 심포지엄'

LG생활건강의 공중 피부과학 럭셔리 코스메틱 '더후'가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섰다.

LG생활건강은 더후가 지난 17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비첩 NAD+ 심포지엄'을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더후는 이번 행사를 통해 '비첩 자생 에센스 4.0'을 글로벌 시장에 처음 공개하고 NAD+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

LG생활건강에 따르면 NAD+는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에서 발견되는 노화완화인자인데, 피부 투과 효율이 낮아 화장품 원료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LG생활건강은 10여년에 걸친 연구 끝에 순도 99%의 NAD+를 캡슐화한 NAD 파워24를 개발하고 화장품에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

더후는 앞서 지난 3월 NAD 파워24를 10% 함유한 '비첩 자생 에센스 4.0'을 국내 출시한 바 있다. 해당 제품은 24시간 밤낮으로 피부를 보호하고 손상받은 피부 장벽을 진정시켜 주는 기능을 갖췄다.



지난 17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더후 비첩 NAD+ 심포지엄'에서 손남서 LG생활건강 뷰티연구소장이 'NAD Power 24'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LG생활건강

아울러 더후는 오는 5월 중국 시장에 '비첩 자생 에센스 4.0'을 출시해 글로벌 고객들에게 차별적 고객 경험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더후는 이날 심포지엄에도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기업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티몰과 주요 백화점 인사들이 참석해 '비첩 자생 에센스 4.0'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더후 브랜드 모델인 배우 이영애가 등장했다. 이영애는 비첩 자생 에센스 4.0을 활용한 피부 관리법을 소개하는 등 뷰티 토크를 진행했다. /이청하 기자

동국제약 여드름 치료제 '센스팟크림' 출시

동국제약이 55년 피부과학 기술력을 바탕으로 여드름 개선을 위한 일반의 약품을 선보인다.

동국제약은 여드름치료제 '센스팟크림'을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센스팟크림'의 주요 성분은 이부프로펜피코놀30mg과 이소프로필메틸페놀10mg이다. 해당 제품은 여드름 부위의 염증을 완화하고 여드름균을 억제해 효과적인 여드름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이 동국제약의 설명이다.

염증성 여드름은 모낭 속에 피지가 고여 딱딱해진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 같은 면포가 오래되어 세균에 감염되고 주위에 염증이 생겨 형성되는 증상이다. 이와 관련 동국제약은 여드름 치료도 시기를 놓칠 경우 흉터와 후유증을 남길 수 있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센스팟크림'은 20g 대용량으로 구성됐다. 세안 후 적당량을 1일 수회 여드름, 뾰루지 등 환부에 도포하면 된다. /이청하 기자

하이트진로, 일본산 사케 첫 출시

'이agara시 준마이긴조 지카구미'

올해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국내 대표 종합주류회사 하이트진로가 일본산 사케 '이agara시 준마이긴조 지카구미'를 처음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agara시 준마이긴조 지카구미'를 생산하는 이가라시 주조는 1897년 설립되어 '전국 신주 감평회' 금상, '관동국세국 주류감평회' 금상 수상으로 관동 지역 313양조장 중 1위 양조장임을 증명한 바 있다.

'이agara시 준마이긴조 지카구미'는

720ml 용량에 알코올 도수는 16도이다. '지카구미'란 사케를 만드는 제조 방식의 하나로, 막 완성된 술을 그대로 병에 담아 산뜻한 맛과 향을 내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agara시 준마이긴조 지카구미'는 감귤과 같은 신선한 향과 음용 도중에 느껴지는 탄산감이 맛을 한층 풍부하게 해 생선회와 같은 양념이 진하지 않은 요리와 잘 어울린다.

한국에는 1년에 340박스(12본입) 한정으로 수입이 될 예정이며 일본에서도 극소수의 특약점에만 제공된다.

/신원선 기자

거래소, 지역사회 후원 이어간다... 17개 단체에 6000만원

아홉 번째 부산 공모지원 사업 실시
정은보 이사장 "복지현장 도움되길"

한국거래소는 18일 오전 10시 30분 KRX 부산본사 62층 대회의실에서 부산 지역사회 공모지원을 통해 선정된 부산지역 17개소 복지단체에 후원금 6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선정된 17개 복지단체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후원전달식 및 설명회를 실시했다.

'KRX 부산 지역사회 공모지원'은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에 시작해 올해 아홉 번째 실시하는 KRX의 부산지역 대표 사회공헌 사업이다. 이는 복지단체 대상으로 '프로그램 지원', '기능보



한국거래소는 18일 부산본사 62층 대회의실에서 부산지역 17개소 복지단체에 후원금 6000만원을 전달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가운데) 등 관계자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강' 등 영역별 신청을 받아 지원하는 것으로서, 이번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된 '장애인 정서지원 프로그램', '아동·청소년 시설 기능보강' 등 총 17개

소 복지단체에 지원할 예정이다. 정 이사장은 "복지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사회 문제들을 조금이나마 해결되길 바란다"며 "앞

으로도 사각지대 없는 폭넓은 복지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포스코DX 청소년 AI 창의 경진대회

포스코DX가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기반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 등을 발굴해 시상하는 '전국 청소년 AI 창의 경진대회(2024 AI Youth Challenge)'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로 5회를 맞이하는 경진대회는 '더 살기 좋은 사회, AI가 만드는 따뜻하고 밝은 세상'이라는 주제로 포스코DX가 지능정보산업협회와 공동으로 주최하며, 교육부가 후원한다. AI를 활용해 청소년 문제, 환경, 안전, 건강, 교육 등 우리 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소정의 양식에 맞춰 작성해 다음달 31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김서현 기자 seoh@

한화 글로벌부문, '화약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스마트통합관제센터 개소
운반 상황 실시간 분석·감시

한화 글로벌부문이 지난 17일 화약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스마트통합관제센터를 열었다.

충북 보은군 사업장에 구축된 스마트통합관제센터는 전국 각지의 화약 운반 차량 및 화약저장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시설이다.

물류솔루션 제공업체인 엠케이얼라이언스와 협업한 첨단 IT기술을 기반으로 전국 화약 운반 차량과 센터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분석, 공유돼 위험 상황을 예방한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MST시스템을 이용해 화약 운반 차량의 위치와 운반



한화 글로벌부문이 지난 17일 충북 보은군에 있는 한화 보은사업장에서 의 화약 안전관리 스마트통합관제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양기원(우)한화 글로벌부문 대표이사(앞줄 왼쪽 네번째)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화 글로벌부문

자, 배송 상태, 과속 여부, 장기 정차, 사고 등 각종 정보를 실시간 감시하는 상황이 시연됐다.

한화는 운반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도난, 분실 등 제삼자로 화약류가 유출될 가능성을 중앙에서 통제함으로써 사고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ysw@

컬리, 경력직 MD 채용

컬리는 신선과 가공, HMR, 축산, 수산, 뷰티 등 전 분야의 경력직 MD를 채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예상 채용 인원은 두 자리 수로, 유관 경력 3년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서류 접수는 이날부터 5월 6일까지다. 서류 전형에 통과할 경우 1차 직무적합성 인터뷰와 인성검사, 2차 종합인터뷰 등을 거쳐 최종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

/최빛나 기자 vitna@

제주항공, '모두락' 설립 7주년... 147만잔 음료 전했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 사업장)

일평균 1300명 임직원 서비스 이용

제주항공은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 사업장 '모두락'이 설립 7주년을 맞았다고 18일 밝혔다.

제주항공은 2017년 4월 항공업계 최초로 장애인 고용 촉진과 안정적 일자리 제공을 위해 직원에게 카페와 네일

아트,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두락을 설립했다.

모두락 장애인 직원 수는 설립 당시 19명에서 현재 48명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중증장애인은 37명으로 77%를 차지한다.

근속연수는 평균 4년 9개월로 설립 당시 인원 중 12명이 현재도 근무 중

이다. 신규 입사자 및 만 60세 이상 촉탁직을 제외한 35명이 정규직이다.

지난 7년간 모두락 카페에서는 147만6700여잔의 음료를 제조했다. 네일 아트는 3만3800여명, 헬스케어는 1만1100여명에게 제공했다. 하루 평균 1300여명의 임직원이 서비스를 이용한 셈이다.

/양성운 기자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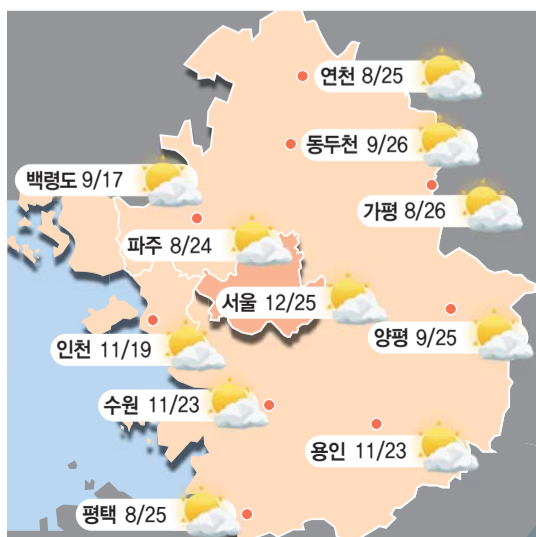
해돋이 / 05:52 | 해질 / 19:11

4월 19일 (금)
음력 : 3월 11일

수도권 날씨

12 ~ 25°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KGC인삼공, 정관장 모델에 가수 임영웅

24일 브랜드 TV CF 송출

KGC인삼공사가 정관장 신규 모델로 가수 임영웅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세대와 성별을 가리지 않고 사랑받는 국민가수 임영웅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정관장의 힘을 전달할 예정이다.

KGC인삼공사는 임영웅의 철저한 자기관리와 팬을 대하는 진심 어린 태도가 정관장이 쌓아올린 신뢰의 가치와 부합한다고 판단해 신규 모델로 발

탁했다고 전했다.

임영웅은 오는 24일 온에어 예정인 브랜드 TVCF를 시작으로 정관장 모델로서 본격적인 행보를 선보일 예정이다. 정관장은 임영웅 광고모델 발탁을 기념해 가정의달 시즌을 앞두고 팬들과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도 실시할 계획이다. 정관장의 가정의달 프로모션은 오는 24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진행되며, 정관장 구매고객 전원에게 임영웅 스페셜 굿즈를 증정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국민대, 광주비엔날레 성공개최 지원

국민대학교가 광주디자인진흥원과 지난 9일 국민대 본부관에서 디자인산업 인재 양성 및 발전과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성공개최를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정승렬 국민대 총장(왼쪽)이 송진희 광주디자인진흥원 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대



중진공-기정원, 스마트공장 인재 육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과 18일 세종시 기정원 본원에서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협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조한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성장 이사(왼쪽)와 안광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마트공장추진단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마사회-강원랜드, 불법 사행행위 막는다

한국마사회는 강원랜드와 '불법 사행행위 단속 및 예방·홍보활동 교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송대영 마사회 경마본부장과 이광훈 강원랜드 카지노본부장 등 양 기관 관계자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마사회



중기중앙회, KBIZ 최고경영자 세미나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강원도 강릉에 소재한 씨마크호텔에서 '2024 KBIZ 신임 최고경영자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지난해 4월 이후 선출된 신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과 중기중앙회 정회원으로 가입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소기업단체장 40여 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인사

- ◆대한상공회의소 △한-말레이 경제협력력위원회 위원장 이우현(現 OCI 회장)
- ◆NH투자증권 ◇상무 신규선임 △경영전략본부장 박선학

부음

▲전점자씨 별세, 모상회씨 부인상, 모승환·정미·선정씨 모친상, 김기현(전 KBS대구총국 보도국장·현 KBS안동방송국 방송부장)씨 장모상 = 17일 오후, 이대목동병원장례식장 5호, 발인 19일. ☎ 02-2650-5121



GORILLA KAFFEE

170년 가업으로 이어 온 독일의 장인정신
최상급 원두를 위한 최적의 로스팅

COFFEE IS PLEASURE. WE MAKE THE BEST OF IT. THERE IS NOTHING BETTER THAN SOMETHING GOOD.
THAT'S WHY WE MAKE VERY GOOD COFFEE. ENJOYMENT WITHOUT FRILLS. OUR HOUSE BRAND GORILLA

'3高' 시대



박 승 덕
냉정과 열정사이

'3고(高) 시대'와 마주했다. 고금리, 고회율, 고유가의 어두운 터널을 얼마나 지나가야 할 지 예상이 쉽지 않다.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 금리인하가 늦춰지면서 대출 이자 부담이 여전히 크다. 원화값은 약세를 이어간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유가를 끌어 올리는 중이다. 지난해 1.4% 성장에 이어 한국은행이 올해 2.1%의 경제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지만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먼저 금리인하 시기가 점점 늦춰지고 있다. 당분간 고금리를 감수해야 할 판이다.

제품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간) 금리인하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매파 성향(통화긴축 정책 선호) 발언을 했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2%로 낮아진다는 더 큰 확신에 이르기까지 기존 기대보다 더 오랜 기간이 걸릴 것 같다고 했다. 그만큼 금리인하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시그널이다. 미국이 금

리를 더 늦게, 더 적게 내릴 것이라 월가의 전망이 지배적이다.

원화값도 크게 떨어졌다. 지난 16일 2022년 9월 레고랜드 사태 이후 17개월 만에 1400원을 위협한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당국의 구두개입에 겨우 1390원대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불안하다. 전문가들은 중동의 지정학적 이슈가 지속되면 최대 1450원대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한다. 1400원대 환율은 1997~1998년 외환위기(IMF사태)와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2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 등 주요 이벤트(2022년 미국 고강도 간축기) 발생 시기를 제외하면 가장 높다.

유가 상승도 심상치 않다. 중동지역의 전면전 위기는 유가 강세를 유발하고 있다. 유가 상승은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금리인하 기대를 후퇴시킨다. 최근 브랜드 유는 90달러대까지 올랐지만 시장에서는 중동 전쟁 확산 시 최대 130달러까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우리나라의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이 72% 수준인 데다 이란이 석유 수출국가(OPEC)에서 세번째로 원유 생산량이 많아 위태롭다.

'3고 현상'이 무서운 것은 우선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켜서다. 기름값 등 물가가 오르고, 이자부담이 커지면 소비는 당연히 위축된다. 사야할 것을 미루는 등 소비심리가 얼어 붙는다. 상품 소비 흐름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는 1년 전과 비교하면 7개월째 감소 중이다.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경제활력 저하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축소라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환율과 유가 상승은 물가상승으로 이어진다. 물가상승률이 목표치(2.0%)를 웃돌면 우리나라 금리도 내리기 어렵다. 실제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한 뒤 CNBC와의 인터뷰에서 "물가가 안정되고 있다는 확신이 들어야 금리인하에 관한 신호를 줄 것"이라고 했다. 당분간 금리인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은행권 가계대출 규모(1100조원대)를 감안하면 대출이 많은 가계의 이자부담이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3고 시대 극복을 위해 정부의 역할이 필수다.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완화 등 정책적 노력을 다방면으로 쏟아내야 한다.

/bluesky3@metroseoul.co.kr

도마뱀이 되어가는 느낌



김 준 영
청명파니

사람의 뇌는 크게 세부분으로 나뉜다. '뇌간', '변연계', '대뇌피질'이 그것이다. 뇌의 가장 안쪽에는 뇌간이 위치한다. 뇌간은 혈압, 맥박 등을 관장한다. 파충류도 뇌간은 가지고 있다. 뇌간의 바깥쪽으로는 변연계가 있다. 변연계는 감정, 느낌 등을 관장한다. 파충류보다 좀 더 진화된 포유류부터 변연계가 있다. 그리고 뇌의 가장 바깥쪽이 대뇌피질이다. 이 부분은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부분이다.

대뇌피질은 포유류 중에서도 가장 진화된 영장류들만 가지고 있다. 이렇듯 세부분은 고유한 기능이 있고, 상황에 따라서 주도권이 바뀐다. 공부할 때는 대뇌피질이 주도권을 쥐지만, 싸울 때는 뇌간이 주도권을 쥐는 것이다. 싸울 때는 혈압을 높이고,

맥박을 빠르게 하여, 혈액을 온몸 근육에 전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싸움이 시작되면 이성적인 설득이 힘들고, 사람도 도마뱀처럼 되어 버린다.

얼마 전, 어느 고객이 카페 사장을 무릎 꿇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고객 A씨는 카페에서 음료를 배달 주문했는데, 실수로 빨대가 빠졌다. A씨는 다시 빨대를 보내달라고 했고, 사장은 사과의미로 빨대와 케이크를 보냈다. 하지만 이번에는 주소를 잘못 받아 적는 바람에 배달이 지체 되었다. A씨는 카페를 찾아와 강하게 항의했고 사장은 결국 무릎을 꿇었다.

방송사에서 공개한 영상을 보면 A씨는 마치 싸울 듯이 흥분해 있었다. 뇌간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반면 사장은 싸울 수가 없었다.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다른 손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장은 대뇌피질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셈이다.

앞선 사례가 아니더라도 살아가다 보

면,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점이 생기게 된다.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워서 상대를 굴복시키는 방법'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상대를 무릎 꿇리는 것은 가장 질이 낮은 방법이고, 도마뱀의 방식이다. 도마뱀의 방식은 또 다른 적을 만들고, 새로운 갈등을 야기 시킨다. 그리고 이런 풍조가 계속되면, 대뇌피질이 주도권을 쥐고 있던 사람도 결국 싸움에 나서야 한다. 이성적인 사람만 끊임 없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삼킬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현재의 우리는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아니면 도마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어쩌면 우리는 스스로 느끼지 못 한 채, 서서히 도마뱀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반성하고 고민해 보아야 할 부분일 것이다.

/칼럼니스트(우리마음병원장)

오늘의 운세 4월 19일 (음 3월 11일) http://www.saju4000.com

- 36년생**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니 마음을 비워라. **48년생** 간교한 속삭임이 많으니 굳은 의지가 필요. **60년생** 삼재기도를 올리는 것도 방법일 듯. **72년생** 깊은 밤은 새벽을 위한 준비이다. **84년생** 분수는 자신을 아는 것인데.
- 37년생** 꽃피고 새가 울기 시작했으니 발전. **49년생** 앞으로도 계속 순탄하다. **61년생** 변화의 날이니 옷차림이나 신발에 신경 써보라. **73년생**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이니 겸손하라. **85년생** 공부하는 두뇌는 명석하나 신경질적.
- 38년생** 구설수가 있으니 새로운 만남을 주의. **50년생** 자손들과 이별 수이니 미리 챙겨보라. **62년생** 지난 인연이 찾아오니 혼란. **74년생** 남의 눈에 티끌은 크게 보이는 법 나를 돌아보라. **86년생** 꿈과 소원은 분수를 넘어서도 안 된다.
- 39년생** 내 것이 아닌 것을 욕심내지 마라. **51년생** 달빛이 밤하늘을 온통 빛나게 하니 상서로운 징조다. **63년생** 의로움보다 참기 힘든 건 그리움이다. **75년생** 소모하려 하지 말고 여유를 두라. **87년생** 재물이 계속 들어오니 횡재수가.
- 40년생** 과로하면 병이 생기니 천천히. **52년생** 소극적인 성격으로 좋은 기회를 놓친다. **64년생** 마음은 별이라도 딸 것 같으나 자중할 때. **76년생** 매화가 피었으니 봄이 멀지 않았다. **88년생** 실전을 통한 지식이라야 산지식이 될 수 있다.
- 41년생** 조상재산으로 형제자매가 분쟁한다. **53년생** 마음이 통하는 동료를 만나니 일 처리가 매끄럽다. **65년생** 오락임으로 다시 재기가 된다. **77년생** 한번은 참으면 열흘이 편안할 터. **89년생** 사람의 지혜는 경험을 통해서 늘어난다.
- 42년생** 가고 싶은 곳으로 가도 좋다. **54년생** 머리가 맑으니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 보는 것도 좋다. **66년생** 어려움은 없으나 낙낙하지도 않다. **78년생** 소개로 만난 연인으로 금전 지출이 많아진다. **90년생** 부유해도 겸손하게 저축해보라.
- 43년생** 뜻밖의 불운은 언행에서 시작이니 말조심을. **55년생** 돈이 있다고 없는 친구에게 번덕을 부려서야. **67년생** 부모님 뵈러 고향 가는 날. **79년생** 직장을 이직해보니 감언이설이 많아진다. **91년생** 씨를 뿌린 만큼 수확으로 거두게 되니.
- 44년생** 나이 들수록 고집 피운다고 대우받지 못한다. **56년생** 여름이 가면 부채는 제 역할을 다 한 것이니 서운해 마라. **68년생** 생각이 많아 복잡한데 후회에 해결. **80년생** 구름이 겹히니 빛이 밝힌다. **92년생** 인연 성취하기 위해 기도 발원.
- 45년생** 노력한 만큼 성과가 있으니 낙담 말고 도전. **57년생** 두드러져 열릴 문이면 힘껏 두드려라. **69년생** 한발 물러서 보면 그다지 나쁜 상황은 아니다. **81년생** 이상적인 인연을 만나는 날. **93년생** 현실을 서러워 말고 적극적으로 일을 찾아라.
- 46년생** 배우자의 소중함이 절로 느껴지는 날이다. **58년생** 아직은 때가 아니니 서두르지 마라. **70년생**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칠 수 있으니 주의. **82년생** 샐러리맨으로 명예로운 진급이 우선. **94년생** 흘러가는 대로 유유히 하루를 보내라.
- 47년생** 금전 문제로 가족 간의 다툼이 예상된다. **59년생** 발전이 느려 답답하나 오늘 은 현상유지만. **71년생** 한 가지 재능으로도 출세는 가능. **83년생** 김치국부터 마시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음을 아시라. **95년생** 복이 도달되니 지혜도 우러난다.



김상회의四季
금테크

어떤 물건이 귀해지고 값이 많이 나가게 되면 금값이 뒀다고 한다. 요즘 금값이 된 물건이 있으니 그건 금이다. 국제 시장에서 가격이 뛰면서 금이 말 그대로 금값이 뒀다. 금리가 낮아지면 화폐가치는 떨어지지만 대표적 실물자산인 금은 가치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고 상승세를 보인다. 금값이 급하게 오르는 걸 보면서 개인들도 금 투자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금으로 채테크를 하는 이른바 금테크에 나선 것이다. 그런데 주식이나 부동산만 지켜보던 사람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금테크를 해야 할지 몰라서 답답해한다.

금투자는 은행이나 증권사를 통해서도 되고 실물로 금을 구매할 수도 있다. 은행에 금통장을 만드는 방법이 있는 데 이를 골드뱅크라고 한다. 금으로 예금을 한다고 보면 되는데 금을 0.01그램씩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다. 거래 단위가 작아서 적은 금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게 장점이지만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건 단점이다. 실물로 골드바를 구매하는 것도 금테크의 한 방법이다. 골드바는 금은방이나 은행 같은 금융기관에서 구매하면 된다.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골드바를 살 수 있는데 큰 금액이 오가는 만큼 안전한 방법으로 결제해야 한다.

금 ETF나 금 펀드도 금융상품으로 나와 있어 어느 정도 공부를 거치면 어렵지 않게 투자를 시작할 수 있다. 금테크가 대중적인 채테크는 아니라고 해도 투자자들은 끊임없이 관심을 갖는다. 문제는 금값이 언제까지 얼마나 오를 것인지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금리가 내리면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며 하락보다는 상승 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 편이다. 금값이 급하게 널뛰어도 투자에는 보이지 않는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으니 공부를 해야 할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416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520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신경활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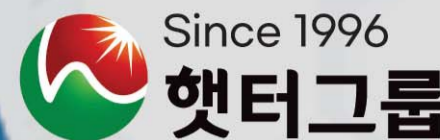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니오의 알파벳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니오의 알파벳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QR코드
할인도서



가성비 좋은 너로 정했다!

대한홍삼 건강백화점

무료 창업 교육

복지 쇼핑몰(온라인) + 건강백화점(오프라인)

교육 일정

A반 : 2024년 5월 13, 20일 월요일 오후 5시 30분 ~ 9시 (2일간)
B반 : 2024년 5월 2, 9일 목요일 오후 2시 ~ 6시 (2일간)

교육 정원

매월 선착순 30명 (정원초과 시 익월 수강)

교육비

전액 무료

교육 대상

전국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주부사원, 직장인, 퇴직자 등

교육 목표

실전교육 전문적인 사례 중심
매출상승 다양한 매출전략 교육
전문양성 성공적인 창업 배출

수강 혜택

수료하신 모든 분들께 **고급홍삼세트** 증정

수강 방법

1. **대한홍삼 홈페이지 > 상담신청**에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거나,
2. **문자 or 이메일**로 성함과 연락처를 전송해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 법인폰 : 010-4480-0045 / E-mail : haettercs@naver.com

교육 주관



교육 강사

헷터그룹 회장 박광섭 (CEO 35년 경력)



교육 장소

본사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마산로96, 대륭테크노타운 8차 601호
가산디지털단지역 1호선 11번 또는 7호선 9번 출구에서 600m

교육 문의

헷터그룹 창업아카데미 고객센터 010-4480-0045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칠레 화이트 와인으로의 초대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왼쪽부터)에라주리즈 메소드 트라디시오넬 엑스트라 브뤼, 아콩카구아 코스타 샤르도네, 에라주리즈 맥스 샤르도네, 에라주리즈 라스 피자라스 샤르도네, 에라주리즈 돈 막시미아노. /아영FBC

칠레 와이너리가 다들 보르도와 비슷한 환경의 마이포 밸리만 바라보고 있을 때 에라주리즈는 안데스 산맥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 아콩카구아 벨리(Aconcagua Valley)로 올라갔다. 칠레 남반부와 서반부를 통틀어 가장 높은 산이다. 포도나무들은 안데스 산맥의 눈 녹은 물을 마시며 자랐고, 태평양과 남극, 아타카마 사막으로 둘러싼 환경은 섬세한 화이트 와인을 만드는데 환상적인 조건이었다.

칠레 마이포 벨리의 레드 와인이 깊고 묵직한 맛으로 이름을 떨쳤다면 아콩카구아 벨리의 화이트 와인은 반짝이는 산도와 우아함으로 이게 어느 나라 와인인지 다시 한 번 와인병을 집어들어 확인하게 된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화이트 와인과는 완전히 결이 다르다. 둘 중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미

되면서 칠레 와인 산업이 태동하던 당시 돈 막시야노 에라주리즈는 칠레 생산자로는 처음으로 프랑스로 날아가 직접 포도품종을 선별해 들여왔다. 우리는 에라주리즈를 칠레 와인의 고급화를 이끈 와인명가로만 알고 있지만 대통령을 4명이나 배출한 소위 '다이아몬드 수저' 집안이다.

'에라주리즈 메소드 트라디시오넬 엑스트라 브뤼'는 아는 사람들만 쟁여놓는다는 에라주리즈의 스파클링 와인이다. 샴페인처럼 병에서 2차 발효를 하는 전통방식으로 만들었다. 150주년을 기념해 처음으로 출시한 만큼 공도 많이 들였다. 병속에서 5년이나 효모 양금과 접촉하면서 복합미와 산도, 우아함까지 다 잡아냈다. 샤도네이에 피노 누아 품종을 섞어 붉은 과일과 잘 익은 달콤함, 꽃향이 입 안을 채운다.

'아콩카구아 코스타 샤르도네'는 아콩카구아 포도밭의 특성을 가장 잘 살린 와인이다. 칠레 서반구에서 가장 높은 산과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가 만난 그 지점의 느낌 말이다. 산도는 짹하지만 미네랄과 실크같은 풍미가 전체적으로 유려한 화이트 와인을 만들었다. 말린 과일과 견과류 풍미가 뒤따라 오며 여운을 길게 남긴다.

'라스 피자라스 샤르도네'는 에라주리즈 화이트 와인 가운데 최상급이다. 프랑스의 그랑크뤼급이라고 이해하면 쉽다. 출시하고는 4년 만에 세계적인 와인 평론가인 제임스 서클링으로부터 99점을 받았다. 화이트 와인으로는 처음으로 칠레 100대 와인 1위 자리에 오르기도 했다. 새로 내놓은 2021년 빈티지도 작년 100대 와인 가운데 상위로 선정됐다.

라스 피자라스는 아콩카구아 코스타 테루아에 좀 더 집중했다. 창립자나 생산지를 연상케 하는 다른 와인인 달리 슬레이트 토양(점판암)을 뜻하는 라스 피자라스를 전면내내 세를 정돈도 말이다.

가장 큰 매력은 균형있는 산도에 더해 복합미다. 감귤류 과일 풍미와 꽃향, 바닐라 느낌까지 조화롭고, 뒤이어서는 갖구운 빵과 말린 과일의 독특한 풍미가 남는다.

아영FBC 관계자는 "한국의 와인시장을 보면 과거와 달리 화이트 와인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며 "특히 에라주리즈 와인은 아콩카구아 지역에서 생산되면서 대중성 높은 화이트 와인부터 고급 화이트 와인까지 와인 애호가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smahn1@metroseoul.co.kr

주말은 책과 함께

정치·역사·예술 등 중국문화 입문서

오랜 시간 이웃으로 지내온 한국과 중국은 지난한 역사 속에서 사납게 부딪히며 함께 성장해왔다. 혐오의 감정은 이해를 통해 얼어붙는 말처럼, 양국에 만연한 반중 정서와 혐한 분위기가 사그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책을 썼다고 저자는 말한다. 그는 "중국은 어깨를 맞대고 영원히 함께해야 할 이웃이다"며 "반중(反中)을 넘어 극중(克中)하려면 먼저 지중(知中)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중국문화 301테마 1·2
심현섭 지음/글로브콘텐츠

향기는 질겨 남았다. 4장 '예술'에서는 한자, 서예, 문학, 회화, 도자기 등을 소개하고 건축물과 원림, 음악, 영화까지 내용을 확장한다. 민중의 삶과 애환이 담긴 예술가들의 작품을 통해 당시 시대상을 엿볼 수 있다. 이어서 장엄한 만리장성, 화려한 자금성 같은 건축물을 포함해 석굴, 누각, 원림 등 중국다운 스케일의 다양한 볼거리를 다룬다. 또 전통극, 전통음악과 더불어 세계 영화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영화를 뜯어본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았던 가수 등려군뿐만 아니라 장국영, 이소룡, 장만옥 등 친숙한 이름의 배우와 영화가 등장해 흥미롭게 즐길 수 있는 파트이다. 마지막 장인 '삶과 여행'에서는 중국의 먹거리를 비롯한 의식주, 무술과 오락, 미신, 자연환경, 여행지 등을 둘러보며 301테마 여행을 마무리한다. 오랫동안 함께한, 오래도록 함께할 우리의 이웃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알려주는 중국문화 입문서. 각 396·392쪽. 각 2만2000원. /김현정 기자 hjk1@

숲은 깊고 아름다운데

공주가 용에게 잡혀가고, 왕자가 용을 물리친다. 이후 둘은 결혼한다. 흔하디 흔한 전래동화 속 이야기. 용은 왜 공주만 잡아갈까? 저자는 애초에 용은 여자를 잡아간 게 아니라고 말한다. 용이 사실은 여자 그 자체라는 것. 여자에게는 용처럼 제멋대로인 야성과 과위가 있다. 과거 가부장제 사회는 용맹하고 거친 여자를 거부했다. 기사가 용을 공격

하자, 여자는 용의 면모를 버린 뒤 여러 고연약한 공주의 모습만 갖고 백마 탄 왕자를 따라가게 된 것이라고 책은 설명한다. 책은 묻는다. 21세기 여성이 공주로 살면 행복하겠냐고. 기사가 돼 다른 사람을 구하거나, 왕이 돼 나라를 세우는 게 훨씬 더 근사한 일이지 않을까. 여성주의 시선으로 재해석한 전래동화의 세계. 236쪽. 1만6800원.

조이스 박 지음/제이포럼



나쁜 책

국가나 종교, 정치권력은 사람들을 깨우는 책을 '금서'로 지정하고 독자의 손에 들어가지 못하게 출판사를 협박하거나 인쇄된 책을 회수해 불살랐다. 그들은 '나쁜 책'이 나와 가족을 부도덕한 사상에 물들이고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서를 두려워한 자들은 '천지개벽'이 아닌 '현상 유지'를 원했다. 그럼에도 문학은 그 자체의 에너지 보존

법칙을 지니고 있어 불에 덴 듯한 뜨거운 문장으로 독자의 심장을 후벼팠다. 위대한 작가들은 출생지도, 태어난 시기도 달랐지만 하나의 관점을 공유했다. '안전하지 못한 책이 안전한 사회를 만든다'는 것이다. 인류의 안전에 해를 끼친다는 이유로 처형됐으나, 역설적이게도 역사를 추동케 한 금서들을 찾아 떠나는 인문학 여행기. 404쪽. 1만9800원.

김유태 지음/글항아리



비정상체중

'여성혐오, 성소수자혐오, 외국인혐오...' 세상에 다양한 혐오가 존재한다. 이중 비만혐오는 자주 정당화되곤 한다. 책은 오랜 시간 견고하게 자리 잡은 비만혐오의 문화를 파헤치며 이 문화가 어떤 방식으로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을 무너뜨려왔는지를 까발린다. 몸에 끊임없이 도덕적 평가와 판단을 내리게 해 죄책감을 부여하는 비만혐오는 계급, 인종, 젠

더의 영역과 교차하며 복합적으로 작동한다. 우리가 존재하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권리가 있는 이유는 개인의 고유함이 어우러져 사회의 다양성을 형성하고, 이것이 유연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몸의 사이즈 역시 마찬가지. 뚱뚱한 몸을 평가하고, 가스라이팅하는 비만혐오 사회에 당당히 맞서는 법을 알려주는 책. 352쪽. 2만원.

케이트 맨 지음/이초희 옮김/현암사



뉴스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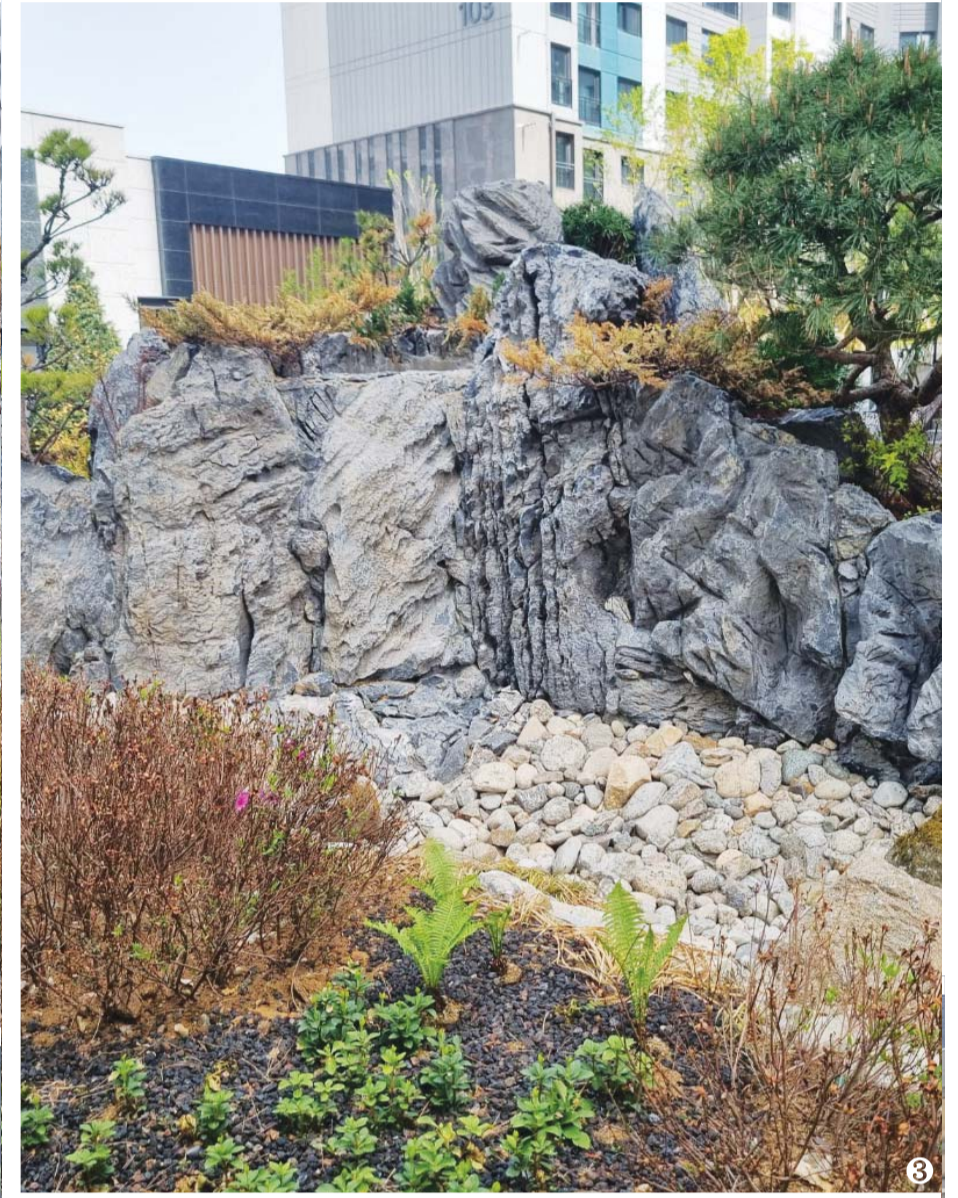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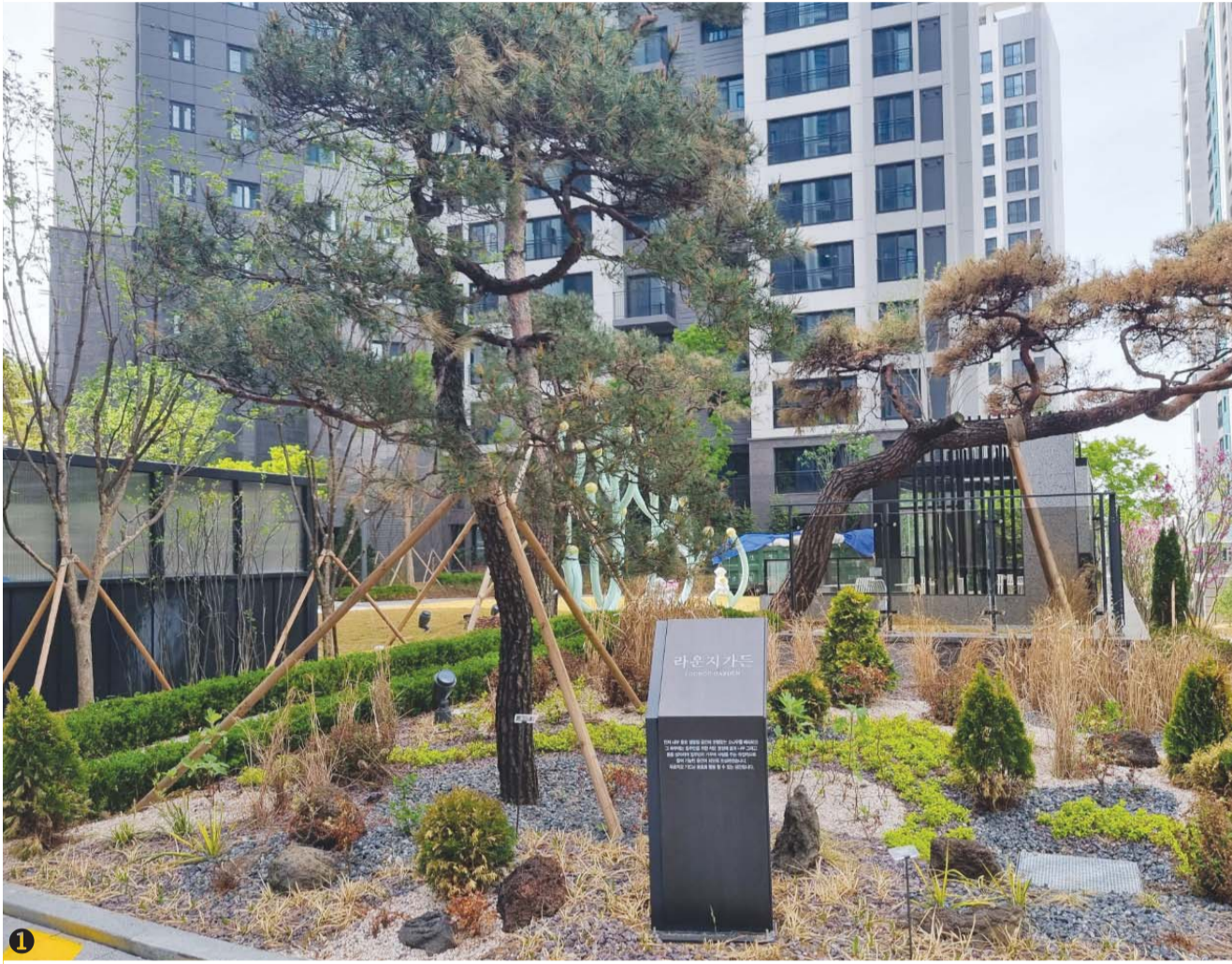
▲ "이스라엘, 이란 공격 이틀 뒤 재보복 계획...美 만류에 연기"
▲ '팔 유엔 정회원국 가입' 19일 안보리서 표결...美 거부권 행사할 듯 /사진 뉴시스

▲ "언론탄압" 주장에...조지아 경찰, 시위대에 최루탄 발사
▲ 바이든 "中철강회사 부정행위"...美 USTR "철저한 조사"



▲ IMF "세계 부채 증가 美·中이 주도...선거의 해, 재정 지출 억제 필요"
▲ IMF, 올해 韓 경제성장률 2.3% 유지... "중동리스크" 미반영 /사진 뉴시스

돌담·수목·초화원... 도시 중심서 자연 품은 '안식처'



① 라운지가든 ② 스텝가든 ③ 석가산
④ 수변공간 ⑤ 티카페

아파트의 미학(美學)

상도푸르지오클라베뉴럴

지하철 7호선 역에서 도보 20분 주변에는 도서관·행정타운 코앞 주차장 없앤 공원형 조경 조성도 남향 위주, 조망·채광·통풍 우수 단지 곳곳에 휴식 공간 자리잡아

최근 찾은 서울 동작구 상도동 '상도 푸르지오클라베뉴럴'. 지난달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는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약 20분 정도 걸렸다.

단지 인근에는 상도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걸어서 갈 수 있었다. 주변에는 국사봉숲속작은도서관, 장승배기 종합

행정타운(예정) 등이 자리 잡고 있어 입주민들이 질 높은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동작구 상도동 일대에 들어선 단지는 지하5층~지상최고18층, 10개동, 총 771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전용면적은 ▲59㎡ ▲74㎡ ▲84㎡ 등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타입으로만 공급됐다.

아파트 정문에는 금색의 '푸르지오' 로고가 부각돼 깔끔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단지는 신축아파트에 걸맞게 멋스럽고 고급스러운 외관을 뽐내고 있었다.

시공사인 대우건설은 조망과 채광, 통풍을 고려해 전체 세대를 남향 위주로 배치했다. 전용면적 74㎡ 이상 타입은 안방 파우더룸 및 드레스룸이 조성돼 넉넉한 수납공간을 마련했다. 특히, 전용면적 74㎡A, 84㎡A 타입(일부 세대)의 경우 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했다.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을 받은 친환경 주거 단지는 입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주차장을 없앤 공원형 아파트로 조성됐다. 주차 공간은 입주민들의 편의성을 고려해 총 939대(가구당 1.21대)의 넉넉한 주차 공간을 확보했다.

단지에는 다양한 첨단 시스템이 적용됐다. 실시간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등 친환경 그린 시스템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원격 시스템, 스마트 일괄 제어 스위치, 주차 유도 시스템 등 편의 시스템이 설치됐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는 상도동에 들어서는 첫 번째 '푸르지오' 브랜드 단지로 상징성과 희소성을 모두 갖췄다"면서 "200만 화소 고화질 CCTV와 무인택배함, 주차관제 차량번호 인식시스템 등을 설치해 단지 안전에 공을 들였다"고 설명했다.

단지에는 '상도푸르지오클라베뉴럴'만의 조경이 눈에 띄었다. 단지 중앙에 위치한 '워터가든'에는 석가산과 휴게공간이 설치됐다. 바람과 폭포의 물줄기, 소나무 등이 조화를 이루는 한 폭의 산수화와 같은 경관을 연출하고 있어 마치 자연 속 한가운데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바로 옆에 설치된 수변공간에는 수생 비오톱이 조성돼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생의 모습을 보여줬다.

단지 내 곳곳에는 깔끔한 느낌의 조경과 휴식 공간이 마련돼 있었다. 소나무와 작은 정원으로 만들어진 휴식 공간 '라운지가든'이 자리 잡고 있었다. 티하우스에서 잔디밭을 보며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그린 파티오', 초화원과 돌담, 수목 등으로 조성된 '스텝가든'도 설치돼 있어 입주민들에게 휴식의 가치를 느낄 수 있게 했다.

단지에는 가족과 이웃, 자연과 단지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푸르지오의 주민편의시설 '그리너리 라운지'(Greenery Lounge)가 조성돼 있었다. 입주민의 편리와 문화, 건강을 위해 피트니스클럽을 비롯해 GX클럽, 골프클럽, 시니어클럽, 독서실, 연회장 등 다양한 시설이 있었다.

단지 내에는 구립어린이집이 위치해 있어 아이를 키우는 신혼부부에게 좋은 여건을 제공해 줄 것으로 예상됐다. 어린이집 옆에는 앵무새를 모티브로 만든 '재잘재잘, 수다쟁이 앵무새' 놀이터가 설치됐다.

단지에는 '늘푸른 나무'와 '알록달록 물감 놀이' 등 다양한 테마의 놀이터가 조성돼 있어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주고 감성 지수를 길러 줄 것으로 기대된다.



간병비 급여화
임플란트 연령 등
입법 관심
08



Life

SK바이오팜
통증치료제
기술이전
L1



고품질 우유로 세상을 건강하게... 국내 유업계 역사를 쓰다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서울우유협동조합 '서울우유'

낙농인 21명 모여 경성우유동업조합 설립
균질기 도입, 가정배달 등 유업계 '한 획'
콜드체인 시스템으로 품질 고급화 시대 열어

▶ 최대 규모 양주공장 기반으로 안정성 ↑
유당불내증도 걱정 없는 'A2+ 우유' 출시

올해 창립 87주년을 맞은 서울우유협동조합(서울우유)은 우유 품질 향상을 위한 혁신과 꾸준한 노력을 바탕으로 국내 유업계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켜온 대한민국 대표 유업체다.

서울우유가 긴 시간 소비자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던 비결은 우유의 맛과 품질 고급화 전략이 있었기 때문이다. 저출산과 유제품 대체 음료 증가함에 따라 국내 우유 소비량이 줄고 있는 추세지만, 서울우유는 유가공 시장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1937년 경성우유동업조합으로 출발한 서울우유는 일반 기업과 달리 직접 목장을 운영하는 낙농인 21명이 조합을 이뤄 설립했다.

경성우유 시절, 우유 배달은 가마솥에 끓인 뒤 일본에서 수입한 병에 담아 가정에 배달하는 방식으로 유통됐다. 해방 직후인 1945년에는 '서울우유동업조합'으로 개칭하고 본격적인 우유 판매에 나섰다.

1950년 6·25전쟁으로 낙농기반이 붕괴되자 서울우유는 낙농 살리기에 앞장섰다. 우유병 사용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미군부대에서 나온 맥주병에 우유를 담아서 파는 등 한국 유업계의 역사 중심에 있었다. 한국 낙농업의 역사가 곧 서울우유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국내 낙농업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

서울우유는 1961년 유지방 소화를 돕고 지방이 뜨는 부유 현상을 없애기 위해 균질기를 도입했다. 이후 1962년 국내 최초로 선진화된 고급 균질우유를 가정으로 배달하기 시작했다. 그 시절 선명한 농협 마크와 함께 커다란 글씨로 '균질우유'라고 쓰인 목제 상자를 신고 다니던 우유 배달원의 모습은 서울우유 홍보에도 큰 역할을 했다. 이를 발판 삼아 서울우유는 근대적 중앙교 공장을 건설하고, 우유뿐 아니라 국내 최초로 연유를 생산하여 최신 유가공 기술을 축적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후 1984년 국내 최초로 목장과 고객을 잇는 전 과정이 냉장상태로 이뤄지는 '콜드체인 시스템'을 완벽히 우유 품질 고급화 시대를 열었다. 뿐만 아니라 2009년에는 '제조일자 병행 표기제'를 도입해 신선한 우유를 소비자들이 직접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서울우유의 대표 흰 우유 '나100% 우유'는 세균수 1A 등급에 체세포수 등급까지 1등급 원유만을 사용한 프리미엄 우유다.

우유의 위생 품질 기준을 세균수만으로 측정해왔던 것에 더해 서울우유는 체세포수라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 우유 품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

세균수 등급이 원유가 얼마나 깨끗하게 관리되는지 보여주는 기준이라면, 체세포수 등급은 젖소의 건강상태를 가늠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스트레스나 질병이 없는 건강한 젖소에서만 체세포수가 적은 고품질의 원유를 얻을 수 있다.

서울우유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2조1000억원, 영업이익률 2.6%를 달성하며 1937년 조합 창립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고품질의 국산 원유를 활용한 트렌디한 제품 출시 및 다양한 판매 채널을 넓히는 한편 '나100%우유'의 브랜드 우수성과 차별성을 내세워 꾸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으며 우유 시장 점유율 46.4%의 견실한 성장세를 이뤄냈다.



1 1937년 경성우유동업조합으로 출발한 서울우유는 1962년 서울우유협동조합으로 이름을 바꿨다.
2 서울우유는 1984년 전 과정 냉장상태로 이뤄지는 '콜드체인 시스템'을 완벽했다. 사진은 서울우유 냉동차 모습.
3 아시아 최대 규모 유가공 생산시설인 양주공장. /서울우유협동조합

특히 IT기술을 접목해 설립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양주 통합 공장을 기반으로 한층 더 안정화된 제조 경쟁력과 물류 효율화를 통한 시너지 확대에 비용 절감에 집중한 경영 효율화 역시 두드러진다.

이달 서울우유는 '우유로 세상을 건강하게'라는 경영 이념을 바탕으로 신제품 'A2+ 우유'를 출시했다. 새롭게 선보인 'A2+ 우유'는 A2 전용목장에서 분리·집유한 100% 국산 A2 우유에 서울우유의 차별화된 핵심 가치인 체세포수 1등급, 세균수 1A 원유를 강조하는 한편 EFL (Extended Fresh Life)공법까지 플러스한 프리미엄 우유다. 유당불내증(유당 분해 효소가 나오지 않아 우유를 소화시키지 못하는 증상)이 있는 소비자도 불편함없이 마실 수 있다.

서울우유는 오는 2030년까지 A2 원유 비율을 100% 교체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올해 말까지 일평균 약 1900톤의 원유 중 3%인 50톤을 A2 우유로 생산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서울우유 조합원의 모든 목장에서 A2 원유가 생산될 수 있도록 전 라인을 A2 우유로 전환할 방침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이강민·김민재 나란히 4강 진출...UCL 결승서 만날까
▲SSG 최정, 골절은 피했다...추가 겸진서 단순 타박 진단 /사진 뉴시스

▲유인촌 "독서올 하락, 엄중히 인식"...4차 독서진흥계획 발표
▲'조선시대 세금은 어떻게 걷어올까' 국립조세박물관 특별전



▲오타니, 하와이에 200억원대 대저택 구입...비시즌용
▲'7년만의 봄배구' 정관장 고희진 감독 "내년에도 PO 목표" /사진 뉴시스